

고 선 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 가족창업자의
창업특성에 관한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강 미 옥

예비 가족창업자의
창업특성에 관한 연구

고 선 강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강 미 옥

인 준 서

강미욱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예비 가족창업자의 창업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혼인유무)에 따라 예비 가족창업자의 창업동기, 가족참여유형, 가족관련 특성, 창업관련특성 그리고 창업교육 선호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아 창업 프로그램 개발의 정책 및 기초자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창업은 각광받는 직업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은퇴라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임금근로와는 달리 자신이 원하던 일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에서도 특히 가족창업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한다. 여러 정부기관 및 창업 박람회, 공·사 단체에서는 창업자들을 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일반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가족창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비 가족창업자들의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되었으며, 전체 418명 중 부실 기재한 16명과 5년 이내에 창업할 의사가 없는 17명을 제외시켰다. 그리고 일반창업과 가족창업에 무응답으로 답한 2명을 더 제외시켜, 총 조사대상자는 383명이었다. 그 중 예비 일반창업자를 제외한 예비 가족창업자 336명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집 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 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그리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한 주요결과는 다음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가족창업의 동기는 ‘취미 또는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와 ‘집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과 교육수준에서는 ‘노후대책’이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혼인유무에서는 ‘노후대책’, ‘집에서도 가능해서’,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나서’가 같은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창업 동기 중 여성들이 ‘취미 또는 여가생활을 위해서’ 가족창업을 하기를 원하였고, 자녀양육의 문제로 ‘집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창업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족참여유형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창업을 한다고 한 사람이 모든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혼인유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과 혼인유무에서 고도로 유의하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연령에서는 40대가,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이하의 집단이, 가구소득에서는 311만원~450만원 이하의 집단이, 혼인유무에서는 기혼이 ‘배우자’와 함께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족관련 특성에서는 여성이 ‘가족들의 지지’가 있을 때 창업을 결정하였다. 50대 이상이 창업을 결정하는 데에 가족들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들이 더 가족원에게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들의 지지’가 적었다. 그리고 미혼집단이 기혼집단과 비교하여 창업 결정시 가족원의 직업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창업 관련 특성에서는 311만원~45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거나 교

육수준이 높지 않거나 남성이 '음식·숙박업'을 선호하였다. 451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거나, 미혼이거나, 여성이 '서비스업'을 선호하였으며, 451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거나 30대가 '인터넷 창업'을 원했다. 기혼이거나 남성이 '신기술 벤처사업'을 원했고, 250만원~31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거나, 대졸이거나, 연령으로는 30대이거나 미혼자가 '이중직업'을 원했다. 교육수준이 중졸이하거나 30대가 '창업과 최근 직업 간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40대이거나 남성은 높은 창업자금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창업교육선호에서는 대졸이거나 30대이거나 남성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창업관련정보를 얻었으며, 중졸이하이거나 여성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혼여성은 'TV 또는 라디오'에서 정보를 주로 얻었다. 30대는 '재무관리', 50대 이상은 '사업아이디어 개발', 대졸은 '시장조사', 가구소득 451만원 이상을 갖거나 20대는 '마케팅'을 주제로 한 교육을 듣길 원했다. 창업교육 참여율은 대학원 졸 이상에서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5개의 창업특성을 살펴 보아, 예비 가족창업자들만을 위한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
1. 용어의 정의	7
1) 창업	7
2) 가족기업	9
3) 자영업	12
2. 이론적 배경	13
1) 창업 선택 및 특성에 관한 이론	13
2) 가족기업 창업에 관한 이론	15
3. 선행연구 고찰	16
1) 창업 특성 및 가족관련 특성	16
2)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창업선택	20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23
1) 연구모형	23

2) 연구문제	25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26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6
2) 가족관련 특성	27
3) 창업 관련 특성	28
4) 창업 교육 선호	28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9
4. 자료의 분석방법	32
IV. 결과 및 해석	33
1.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창업동기	33
1) 성별에 따른 창업동기	33
2) 연령에 따른 창업동기	35
3)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동기	37
4)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동기	39
5)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동기	39
2.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42
1) 성별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42
2) 연령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44
3) 교육 수준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46
4) 가구 소득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48

5)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50
3.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53
1) 성별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53
2) 연령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54
3)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56
4) 가구소득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57
5)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57
4.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0
1) 성별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0
2) 연령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2
3)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3
4)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6
5) 혼인 유무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9
5.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2
1) 성별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2
2) 연령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3
3)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5
4)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7
5)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8
V. 결론 및 제언	80
1. 요약 및 결론	80

2. 제언	87
1) 본 연구결과에 대한 제언	87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89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부록

〈표 차례〉

<표 I-1> 경제활동참가율	3
<표 II-1> 학자들의 가족기업 개념정의	11
<표 III-1> 변수의 조작적 정의	24
<표 III-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IV-1> 성별에 따른 창업동기	33
<표 IV-2> 연령에 따른 창업동기	35
<표 IV-3>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동기	38
<표 IV-4>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동기	40
<표 IV-5> 성별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43
<표 IV-6> 연령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45
<표 IV-7> 교육 수준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47
<표 IV-8> 가구 소득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49
<표 IV-9>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50
<표 IV-10> 성별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53
<표 IV-11> 연령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55
<표 IV-12>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56
<표 IV-13>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58
<표 IV-14> 성별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1
<표 IV-15> 연령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2
<표 IV-16>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4
<표 IV-17>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7
<표 IV-18>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69
<표 IV-19> 성별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2
<표 IV-20> 연령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4

<표 IV-21>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6
<표 IV-22>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7
<표 IV-23>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78

<그림 차례>

< 그림 1 > 연구모형	23
---------------------	----

< 부 록 표 >

<표-1>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이유
<표-2> 가구소득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표-3> 성별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표-4> 연령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표-5>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표-6>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표-7>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과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전체 78.5세로, 성별로는 남자가 75세, 여자가 82세이다. 2004년 평균수명인 77세와 2003년 평균수명인 75.5세에 비하면 해마다 1.5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보건통계, 2007). 통계청의 ‘200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접어들면서 ‘고령화 사회¹⁾’에 진입하였고, 18년 뒤인 2018년에는 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배 정도인 14.3%로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 후 8년 뒤인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를 프랑스는 115년, 노르웨이는 92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8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선진국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빠른 증가가 아닐 수 없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의 정년은 62-65세가 정년인 교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5세 전후이다(인터넷연합뉴스, 2006). 노동부에서 2006년 2~3월 실시한 고령자 고용현황조사에서 상시 근로자²⁾ 300인 이상인 사업장 1,95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근로자 평균 정년은 56.9세였지만 그나마 명예퇴직이나 정리 해고 등으로 정년제도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연도별로

1)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 고령 사회라고 함.

2) 근로소득이 신고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원은 제외됨.

살펴보면, 2001년의 근로자 평균정년은 56.7세, 2003년은 56.65세, 2005년은 56.83세로 소폭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변동은 없다(노동부, 2007). 장지연·호정화(2002)의 연구에서도 은퇴연령은 1987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상승세였으나, 1997년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 하락세를 보였지만, 2001년에 15세인 남성은 60.9세에, 이 때 이미 45세인 남성은 63.8세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 같은 시점에 15세인 여성은 평균적으로 47.5세까지 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45세 여성은 58.7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정년 나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이 되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06년 고령자 통계’에서 보면 고령층(55~79세) 인구 중 향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은 57.9%였으며, 이들의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가 34.3%였다. 그 다음 이유로는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가 17.4%를 차지하였다. 고령층(55세~79세) 장래 근로 희망자들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임금수준’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계속 근로 가능성’ 즉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답한 사람이 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고령층의 취업요구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 -1>에서 보면 2005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1년에 30.0%, 2002년에 30.7%로 0.7% 상승세를 보였다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4년 29.8%, 2005년은 30.0%로 2004년에 비해 0.2%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노년층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경제적인 이유와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로 은퇴 후에도 노년층에게 계속해서 일자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I -1>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5세 이상	61.4	74.3	49.3	62.0	75.0	49.8	61.5	74.7	49.0	62.1	75.0	49.9	62.0	74.6	50.1
65세 이상	30.0	41.3	22.9	30.7	42.8	23.0	28.7	39.8	21.5	29.8	41.4	22.2	30.0	41.2	22.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따라서 은퇴 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생각해 볼 때,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것은 노년층이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정년이라는 제약을 동반하므로, 은퇴라는 부담감이 없는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박은주(200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 전체 노인 105명중 창업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노인은 84명(80%)이라고 할 만큼 노년층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정년제도의 의미퇴색과 안정적 고용에 대한 불안은 고령자들뿐만 아니라 20~50대에게도 창업을 취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20대들의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예전과는 달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창업을 고려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월간B&F, 2003). 20대의 청년창업, 불안한 미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부업 등은 연령과 계층의 제한 없이 창업을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40대 연령층에서는 남성의 창업률이 높았지만, 20·30대층에서는 여성이 더 남성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창업을

통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로도 볼 수 있으나, 달리 생각해보면 청년 실업 및 다른 사유로 인해 남성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남편의 소득이 없으므로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대신하여 직업전선에 뛰어든 사례로 볼 수 있다(조선일보, 2005). 모든 연령대에서 청년이란 압박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으며, 성공을 하게 되면 임금 고용직이었을 때 보다 목돈을 벌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관심은 회사원들 사이에서도 3명 중 1명이 창업 의사를 밝힐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주간한국, 2007).

창업의 유형으로는 일반창업, 여성창업, 가족창업 등이 있다. 일반창업은 개인과 법인 창업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경우는 자본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창업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최근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007년 3월에 '07년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고, 여성 기업에 81억원을 투입하여 그 중 23억원을 창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혀 여성창업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중소기업청, 2007).

가족원이 함께 참여하거나 또는 가족들로부터 창업자금 투자를 받는 가족창업은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현실 대안적 창업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넥스트 이코노미지, 2007). 그러나 가족창업은 업무적인 마찰로 인한 가족원의 불화 및 세대 간의 갈등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창업은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가족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불황기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창업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가족 공동의 노력으로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다른 형태의 창업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특성을 갖는 가족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창업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미 창업과정을 거친 가족기업(Family

Business)의 경영에 관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어,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로 가족창업을 하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가족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 이후의 기업 활동에 대한 연구 이전에 가족창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창업 동기는 무엇이며 창업에 대한 선호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비 가족창업자의 기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예비 가족창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수적이며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일 것이다.

창업 준비자들을 위하여 창업 관련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 기업들 또는 박람회에서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가족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창업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가족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에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비 가족창업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예비 가족창업자들이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각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가족창업에 대한 기대, 선호 등이 다를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예비 가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가족창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가족구성원과 함께 창업하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가족관련 특성과 창업관련 특성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어떠한 창업교육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예비 가족창업자들의 사회·인

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여, 예비 가족창업자 집단 안의 다양한 선호와 요구를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예비 가족창업자의 창업특성을 5가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별 선호와 요구에 맞추어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보다 체계적이고 질 좋은 창업 준비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예비 가족창업자의 특성과 관련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한다. 먼저 가족창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업에 대한 개념 정의와 가족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또한 실제 창업 현장에서 소규모 가족기업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의 개념을 소개한다.

1) 창업

① 창업의 개념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처음 일으킨다’이다(네이버백과사전, 2007). 우리나라에 창업학(entrepreneurship)에 대하여 처음 소개한 박춘엽(2001:8)의 ‘창업학’에서는 “창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본을 이용하여 사업아이디어에서 설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라고 창업을 정의하고 있다. 창업이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가 자질을 갖춘 개인 또는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며 적절한 사업기회에 인원, 자본, 설비 및 원자재 등과 같은 경영지원을 해주는 것을 확보하여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세우는 것으로도 정의한다(포항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07). 창업에 대한 정의로 창업자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수익

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조경동, 2004). 그러나 창업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적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을 구상, 투입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경영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기도 하여, 재산을 획득하는 일 뿐 아니라 인간의 행복 및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창업을 한다고 본다(영진사이버대학, 2007). 또한 조경동(2004)의 ‘소자본기업 창업론’에서는 창업의 목적을 개인의 이윤추구와 자기만족추구,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기여에 있다고 하였다. 학문적 정의와는 달리 실제 창업관련 현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국세청(2007:14)은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 쉬운 세금’이란 책자에서 창업의 정의를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을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는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창업은 인간적 행복과 즐거움 충족 및 사회에 기여 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아이디어, 자본, 인적 자원 그리고 경영지식 등을 가지고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 가족기업

① 가족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의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는 경영학 분야에서 자영업 및 중·소가족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김지희, 1999). 따라서 가족적 측면보다는 기업경영 측면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서 연구되어 왔다(김현정, 2004). 가정학 분야에서 가족기업은 가족이란 특성과 기업이란 특성이 같이 병존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가사노동 문제의 개선,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개선시키는 방안 주제로 연구되어져 왔다(홍성희, 2000).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미국에서는 그 연구가 198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각국은 가족기업의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기업의 개념 정의 일 것이다(김영선·옥선화, 2005).

가족기업의 개념은 학자별로 조금씩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 이 개념들을 정리한 <표 II-1>에서 보면 기업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의 수와 가족과 기업의 상호관련성 그리고 창업자의 계승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지희, 1999).

이상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가정학 분야에서 알려져 있는 가족기업의 개념은 단일가족(single family)이 그 기업의 통용되는 51%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며, 1명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기업에 참여를 하여 그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여를 하며, 가족과 기업이 가족의 관계, 갈등 그리고 자원관리 행동 등에서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을 다음세대의 가족구성원에게 계승시킬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을 의미한다(Ibrahim & Ellis, 1994; 김지희, 1999 재인용). 이러한 정의는 4가지 요소(경

영권, 소유권, 가족원의 참여정도, 가족승계)를 모두 갖춘 경우를 가족기업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개념정의를 가지고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주체에 따라 각 연구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를 중심으로 가족기업을 정의 한다.

본 연구는 가족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가족관련 창업특성을 포함하는 연구이므로, 가족기업 개념의 정의를 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원 수가 2명 이상이거나 가족원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가족기업을 정의한다.

<표 II-1> 학자들의 가족기업 개념정의

학 자	인적 구성	상호관련성	창업자의 계승
Aronoff & Ward(1991)* Pratt(1986)***	1명이상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		
Davis & Tagiuri (1982)**	기업에 영향을 미 치는 가족원수 2명이상		
Rosenblatt, de Mik, Anderson & Johnson(1985)***	가족기업의 소유권 과 통제권을 단일 가족이 가지지만, 2 명 이상이 직접 참 여		창업자의 가족구성 원에 의해 관리되 는 기업이라고 함.
Donnelley (1964)**	2세대가 기업에 참 여	가족과 기업관계 가 회사정책, 가족 이익 및 가족목적 에 상호영향을 미 침.	
Churchill & Hatten (1987)**			가족구성원이 창업 하고, 창업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소유 권을 가지며, 기업 경영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하는 조직 체
Ibrahim &Ellis (1994)***	단일가족이 소유하 고 최소 1명 이상 이 경영과 관리에 참여		소유권과 리더쉽이 다음 세대에게 계 승되어지는 조직체
Shanker &**** Astrachan(1996)	기업의 창업자나 그 후계자가 경영	기업의 주가 되는 전략적 방향과 의 사결정의 지배를 가족이 함	기업을 창업한 사 람이나 그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나 여러 세대의 계승

*홍성희(2000)재인용, **김영선·육선화(2005)재인용, ***김지희(1999)재인용,

**** 남영호(2000)재인용

3) 자영업

① 자영업의 개념

실제적으로 자영업 또는 자영업자를 일컫는 용어의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자영업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다(엠펙스사전, 2007).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를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원으로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영업 종사자 또는 자영업주에는 고용주와 자영자가 이에 속한다. 반면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규정은 영세자영업자 대책에서 발표했듯이(2005년 5월 31일)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활형 서비스업³⁾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고선강, 2007).

가족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들(김순미·홍성희, 2000; 송지영, 2001; 김혜연·김성희, 2000; 광인숙·이경희, 2000; 차성란, 2001)은 주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계를 조사 표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송지영(200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전체 고용 중 가족기업과 가장 흡사한 노동 형태가 자영업부문이라 하였으며, 그것을 완전한 가족기업이라 여길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가족기업의 현황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기업이라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표본을 표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가족기업 종사자 간에는 어떠한 공유부분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자영업은 가족기업의 의미를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김현정, 2004).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것들 중,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자영업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3)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및 개인운송업 등이 이에 속함.

2. 이론적 배경

1) 창업 선택 및 특성에 관한 이론

① 창업 선택에 관한 이론

본 연구는 소규모 가족창업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제학에서 발전시킨 노동시장에서의 자영업 선택에 관한 이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임금근로 대신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가는 자영업 선택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Kihlstrom와 Laffont(1979)는 위험선호형인 사람이 자영업을 선택하며, Jovanovic(1982)와 Rees와 Shah(1986)는 소득에 있어 자신의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Evans & Jovanovic, 1989; Blanchflower & Oswald, 1998)에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며, 노동시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사람이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Coste & Tennyson, 1992; Moore, 1982). 또 다른 연구로 Lucas(1978)는 노동자에 능력에 따라 가장 우수한 자들이 기업주(자영업주)가 된다고 하였으나, Evans와 Leighton(1989)은 능력이 적은 노동자들이 자영업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류재우·최호영, 1999 재인용). 가족구성원 중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였으면 그 자식이, 남편이 자영업을 하였으면 그 부인이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Bruce, 1998; Hout & Rosen, 1999). 이러하듯이 어떤 각도로 자영업 선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견해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이론들을 종합하여 자영업 선택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김우영, 2000재인용).

② 창업자 특성에 관한 이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개인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정신’이라고 한다. 어떠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는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가’란 자신의 기업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배타적인 경영권을 가진 자(Hicks, 1946; 손동원·김현태, 2006 재인용)를 일컫는다. ‘기업가정신’이란 용어는 약 200년 전 Richard de Cantillon에 의해서 처음 널리 사용되었다. Hisrich와 Brush는 기업가 정신을 ‘위험 부담성은 있지만, 그만큼의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과정’으로, H. H. Stevenson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혁신 또는 위험 감수하는 정도’라 정의하였다(이상석·고인곤, 2006재인용). 창조성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천하여 혁신을 일으키는 인간적·조직적 과정은 기업가 정신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천에는 반드시 개인 및 조직의 상호 작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한정화, 2005).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특성은 강한 추진력과 실패를 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 금전에 대한 강한 욕심 및 욕구,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시에 그 문제 해결능력, 끈기 있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또한 온건한 모험심과 혹 실패를 하였더라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늘 그것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기업가가 된다고 볼 수 있다(이상석·고인곤, 2006).

2) 가족기업 창업에 관한 이론

가족기업 창업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조정과 적응’ 이론이 있다. 가족기업은 가족 기능과 기업 기능이 합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되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정과 적응 이론’은 Morris와 Woods(1971)의 주거조정이론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주거조정이론(the theory of housing adjustment)은 1970년대 초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난과 주택시장 진입을 분석하여, 가족이 외부의 힘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Morris & Winter,1975:1978:1994, 홍성희, 2000재인용).

가족이 사회의 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 이는 조정과 적응이다. ‘조정’은 만족할만한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외부의 환경과 객체들을 가족이 조작하는 수단적 행동이다. ‘적응’은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스스로 가정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조정 및 적응 이론은 가정이 사회 규범에 제약을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복지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가족이 가족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지, 그 기업이 어떻게 주변 환경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성장 및 변화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가족기업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홍성희, 2000).

가족기업 창업은 사회의 경제적인 요구와 노동요구의 변화에 대해서 가족이 반응하고,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가계의 반응으로 이해하였다. 가족기업 창업은 가계의 경제적 요구에 대한 적응적 반응행위이다. 다시 말해 가족구성원의 실업과 같은 경제적인 위기는 가족기업의 창업이 가족원의 경제적인 면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한편, 가계 재정이 안정적 상태라면 가족기업 창업은 현재의 소득이 가족기업의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 및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김지희, 2001).

3. 선행연구 고찰

가족기업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나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그리고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을 비교하여 분석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와 자영업 및 전반적인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들을 기초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창업 특성 및 가족관련 특성

① 창업 동기 및 가족참여 유형

전방지(2002)는 여성기업인들의 창업동기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으로 여성 창업일 경우는 전 직장과 소득에 대한 불만 등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으로는 자아실현의 동기 및 기업가적 충동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이 이에 속한다. 문숙재·최자경(2001)의 연구에서는 ‘경제력’이 창업을 하게 하는 가장 큰 동기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아실현’, ‘스스로 독립하고 싶어서’로 나타나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자아 성취 및 독립을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택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한 김현정(2004)의 연구에서는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좋아서’, ‘사업의 발전가능성 때문에’가 응답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안정성, 다시 말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으며, 직장 조직 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및 조기퇴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기업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좋아서’라는 이유에서

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직 일자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발전가능성’은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기업을 운영하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힘든 일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여성기업의 창업동기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Breen, Calvert and Oliver(1995)는 자유와 유연성에 대한 욕구, 독립적인 사업운영, 야망의 실현, 개인적인 도전을 위하여 창업을 한다고 정의하였다. Lee Gosselin and Grise(1990)는 창업을 하는 이유가 경영자가 되고 싶은 욕망, 독립적인 사업운영, 야망의 실현, 지식과 기술의 사용 및 성취 욕구를 위해서라고 하였다. Deng, Hassan and Jivan(1995)은 자유와 유연성에 대한 욕구, 재정적 독립을 위한 자금 확보 그리고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였다. Hisrich and Brush(1986)는 창업 동기를 전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불만과 사업기회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찾게 된다고 하였다. Fried(1989)는 창업 동기를 사업기회 인식, 경영자가 되고 싶은 욕망, 재정적 독립을 위한 자금 확보, 지식과 기술의 사용 및 성취욕구라고 정의 하였다. Capowski(1992)는 경영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독립적인 사업운영이 여성기업의 창업동기에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상석, 2006재인용).

창업에 가족원의 참여유형을 조사한 선행연구로 고령자의 창업욕구에 관하여 연구한 박은주(2002)의 연구가 있다. 박은주(2002)는 어떤 가족원(가족 또는 친지)과 함께 동업을 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동업할 사람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총 84명 중 46명인 54.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들의 반대 및 고령자 창업이 보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동업할 가족원으로는 가족구성원 중 배우자가 25명(29.8%)으로, 자녀는 7명(8.3%), 형제는 6명(7.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할 시에 배우자와 가장 동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② 가족 관련특성

과거 기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과 기업을 뚜렷하게 다른 체계로 보고 분리하여 연구하였으나, 가족과 기업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가족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가족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Aldrich & Cliff, 2003).

가족 관련 특성 중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창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Bruce, 1998; Hout & Rosen, 1999; 김우영, 2000제인용)에 의하면, 부모 중 아버지가 예전에 자영업을 하였다면 자식이 그 영향을 받아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전병유(2003)는 자영업을 택하는 사람과 임금근로를 택하는 사람들을 분석하여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부모님이 예전에 자영업을 하였으면 아들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딸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성지미(2002)의 연구도 자영업 선택시 미치는 영향 중 하나인 부모의 자영업 여부가 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금재호·조준모(2000)는 1998년 제 1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 경험이 없는 신규취업자의 경우,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였거나 아버지가 전문가, 사무종사자, 고위관리자로 일했던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창업에 있어서 가족원의 지지에 대한 연구로 박은주(2002)의 연구가 있다. 박은주(2002)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욕구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결과

중 가족의 지지 부분에서 창업 시 가장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으로 전체 84명 중 54.8%가 배우자라고 답해, 가족의 지지는 창업의 환경적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owe(1993)와 Epstein(1982)의 연구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원 또는 부부가 참여하는 가족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가족기업의 경영에 긍정적인 면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영, 2001재인용).

이처럼 가족의 직업,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원의 지지가 창업의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③ 창업 관련특성

문숙재·최자경(2001)은 여성창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여성창업가의 특성이 창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창업배경을 알아본 결과 초기 창업자금 출처로 저축 등의 개인자본에서 사용하였다는 창업자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친지)이 25.3%를 차지하여 가족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자영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업에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음식업과 농·수산업에서 자영업주가 될 확률이 높았으며, 수도&가스 및 공공서비스 산업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단순 노무직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비스직이나, 기능직, 전문직에서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에서는 낮은 확률을 보였다(김우영, 2000). 송지영(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도소매업과 요식업 및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2)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창업선택

① 성별

김순미·홍성희(2000)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1998년 한국가구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남성자영업자의 수가 여성자영업자 수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자영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송지영(2001)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가족기업 선택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였을 시, 남성보다는 연령 및 자녀양육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임금 직 선택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결혼 후에 늘어나게 되는 가족원 수로 인해 높은 임금을 기대하지만, 여성이 임금 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임금 수준은 매우 낮은 현실로 인하여 가족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② 연령

전병유(2003)는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연령이 높을 확률이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은퇴의 제한성이 없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성지미(2002)는 ‘한국노동패널’ 제 1차년도(1998)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자영업 선택에 있어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20대 연령층과 비교해 볼 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근로 보다는 자영업을 택하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류재우·최호영(1999)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1985~199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근로자는 임금노동자에 비해서 평균연령이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주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패기와 열정은 넘치지만 경험이나 재정 능력 면에서 미흡하여 젊은 사람들이 연령이 높은 사람들보다 자영업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다(Bregger, 1996; 김순미·홍성희, 2000재인용).

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오랜 세월동안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높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분야의 지식 축적 등이 원인이 되어 오히려 자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Parasuraman, 1982; Morrow & McElroy, 1987; Price, 1997; 송지영, 2001재인용). 송지영(2001)은 전직이 임금 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기업으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가족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기업에서 얻는 수입이 임금 직일 때 보다는 높은 소득을 얻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③ 교육 수준, 가구소득 및 혼인상태

성지미(2002)는 고졸미만의 학력이 자영업 선택 시 대졸이상의 학력자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근로를 선택할 시에 따르는 교육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해서 연구한 류재우·최호영(1999)은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졸 이하나 대졸 이상의 사람들보다 자영업주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유(2003)는 대졸 미만의 사람보다 대졸인 사람들의 자영업 선택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원졸 이상인 사람들은 오히려 자영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았다. 학력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우영(2000)도 1998년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과 임금근로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도에 따른 자영업의 선택유무는 교육수준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ronson(1991)은 대개 학력이 높을수록, Blanchflower(1998)은 학력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사람들 즉 학력의 양극점의 사람들이 자영업을 할 확률이 높다고 추측하였다(김우영, 2000재인용).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자영업 선택 시 교육수준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지미(2002)에서는 가구총소득(근로소득 제외)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결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유(2003)의 연구에서 혼인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다.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김우영(2003)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유무가 자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고,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고, 반대로 임금근로자이면 그 확률은 낮았다(성지미, 2002).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창업, 가족기업 그리고 자영업에 대한 정의 및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임금근로 대신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들이 가진 특성(기업가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기업 창업에 관한 이론으로 ‘조정과 적응’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선행연구고찰로 창업 특성 및 가족관련 특성으로는 창업 동기, 가족참여유형과 가족 및 창업관련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창업선택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및 혼인상태를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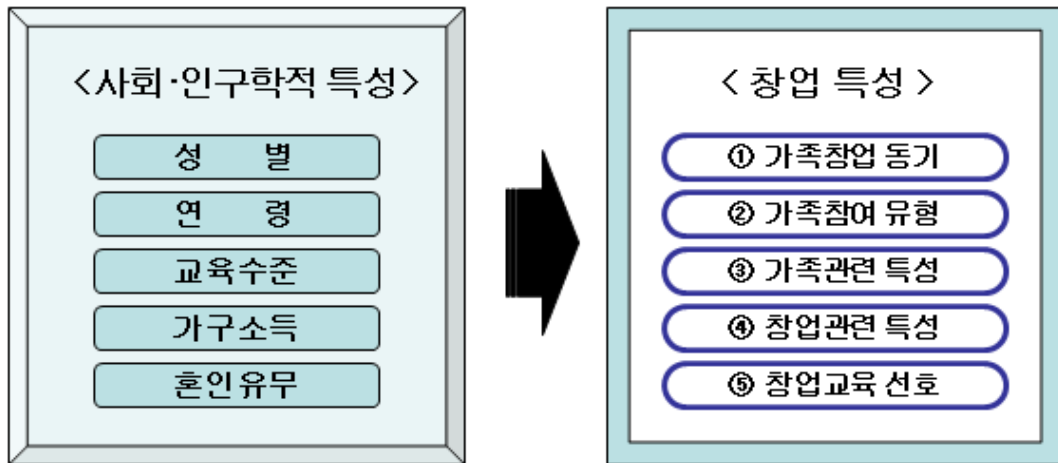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혼인상태를 도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창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가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 연구모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 III-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예비 가족창업자		5년 이내에 창업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가족원이 함께 창업을 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
가족창업동기		가족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 경제적인 문제, 노후 대책,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취미나 여가생활, 가족원과 함께 하고 싶어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집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창업으로 성공한 가족을 보았기 때문에 등으로 분류
가족참여유형		예비가족창업자와 함께 창업활동 또는 기업 활동을 함께 할 가족구성원: 가족구성원 중에 무촌 관계인 배우자, 1촌 관계인 부모·자식, 2촌 관계인 형제·자매, 3촌 관계인 삼촌·고모·이모 등, 4촌 관계인 4촌 형제·자매, 온가족 또는 혼자서하는 창업으로 분류
가족 관련 특성	가족들의 지지	예비 가족창업자에 대한 가족원들의 정서적 지지(지원)
	가족원에 대한 기대	예비 가족창업자가 가족원들에게 바라는 도움 및 기대
	가족원의 직업과창업의 관련성	예비 가족창업자가 현재 구상중인 창업 아이템과 가족원의 직업과의 관련성
	가족원의 취미 및 특기와의 관련성	예비 가족창업자가 구상중인 창업 아이템과 가족원의 취미 및 특기와의 관련성
창업 관련 특성	창업자금	예비 가족창업자가 예상하는 창업에 투입될 자금의 규모
	가족지원금	예비 가족창업자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창업자금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	예비 가족창업자가 현재 구상중인 창업 아이템과 전·현직업과의 관련성
창업 교육 선호	창업관련정보	예비 가족창업자가 창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 또는 사람
	교육프로그램 참여	예비 가족창업자의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창업교육주제	예비 가족창업자가 원하는 창업교육주제

2) 연구문제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5개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창업 동기는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원의 참여유형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4.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5.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교육선호는 어떻게 다른가?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설문지)는 소상공인 창업 성공·실패 요인 조사 설문표(중소기업중앙회, 2006), 여성 전문 인력의 창업활동 심층 면접지(한국여성개발원, 2004) 그리고 이상석(2006) 여성기업의 창업동기·성공요인,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다른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총6장,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질문으로 5년 이내에 창업을 할 것인가를 ‘있다’, ‘없다’로 물었다. 이 문항으로 ‘예비창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가족창업에 대한 의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1점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3~4번은 ‘가족창업을 하려는 동기’, ‘어떤 가족원과 함께 할 것인가’와 같은 가족창업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8문항, 가족 관련 특성에 관한 4문항, 창업 관련 특성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으로 창업 교육 선호에 관련된 5문항들을 설문하여 예비 가족창업자들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5년 이내에 창업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을 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건강상태, 그리고 가족원수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자에 ‘1점’, 여자에 ‘2’점을 주었고, 연령은 자기기입식으로 물은 후에 나온 값으로 연령대를 나누었다.

교육수준에는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직

업은 한국직업분류표에 의해 정해진 1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가구소득은 자기기입식으로 물은 후에 나온 값으로 범위를 정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를 바탕으로 평균 가구소득(325만 1천 원)과 유사한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었다.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 '1점'에서 아주 좋다 '5점'까지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창업자와의 관계 및 연령, 성별, 학력, 동거유무, 취업유무, 직업 등을 창업자에게 물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주어 알아보았다.

2) 가족관련 특성

조사 대상자인 예비 가족창업자들의 가족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창업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 창업 시 가족들로 부터 예상하는 도움, 창업과 가족원의 직업관련, 창업과 가족원의 취미와 특기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들의 가족창업에 대한 지지는 전적으로 '반대 한다'에 1점, '지지하지 않는다'에 2점, '중립이다'에 3점, '지지 한다'에 4점, '전적으로 지지 한다'에 5점, '말해 본 적이 없다'에 6점을 주었다. 가족들의 도움에 대한 기대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전적으로 기대한다 '5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가족원의 직업과 창업과의 관계, 가족원의 취미 또는 특기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관련 없다 '1점'에서 매우 관련 있다 '5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3) 창업 관련 특성

조사 대상자인 예비 가족창업자들의 창업 관련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창업자금, 가족으로부터의 창업지원금, 창업과 최근 직업과의 관계, 산업별 창업분야 그리고 창업형태로는 신기술·벤처사업, 인터넷 창업, 이중직업(투잡스⁴⁾), 재택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자금과 가족에게 지원 받는 금액은 자기기입식으로 물어 나온 값으로 범위를 정하였다. 창업과 최근 직업과의 관계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관련 없다 '1점'에서 매우 관련 있다 '5점' 까지 점수를 주었다. 산업별 창업분야는 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분야를 나누었으며(복수응답가능), 창업형태는 최근 창업 동향으로 선정하여, '예' 에 1점, '아니오' 에 0점을 주었다.

4) 창업 교육 선호

조사 대상자인 예비 가족창업자들의 창업교육선호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주로 창업관련 정보를 '예' 에 1점, '아니오' 에 0점을 주었고(복수응답가능),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참여여부도 '예' 에 1점, '아니오' 에 0점을 주었고, 그 교육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은 자기기입식으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주제는 박춘엽(2004)의 목차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고(복수응답가능), 그 외의 기타 주제는 자기기입식으로 알아보았다.

4) 본업 이외에 부업을 가지는 것. 또는 그런 사람(네이버사전, 2007).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연령에 제한 없이 조사되었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조사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유사한 센터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7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 맞게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 100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창업강좌에서, 100부는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48부는 안산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70부는 서울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설문을 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418부였으며, 그 중 부실 기재한 16부의 설문지를 제외시켰다. 설문대상자 402명 중 17명의 응답자가 5년 이내에 창업을 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385명의 연구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이 중 가족창업을 할 것인가와 일반창업을 할 것인가에 무응답으로 답한 2명을 더 제외시켰다. 최종 조사대상자 383명 중에서 5년 이내에 창업을 할 계획이 있으며 그것이 가족창업이라고 답한 예비 가족창업자의 수는 336명이었고, 일반창업이라고 답한 예비 일반 창업자의 수는 47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조사대상자는 383명이었으나, 예비 가족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자를 제외하여 총 33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I-2>과 같다. 조사대상자(N=336)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52.4%(N=176), 여성이 47.3%(N=159)로 남성이 조금 많았으며, 연령대는 30~39세가 33.0%(N=111), 가장 많았고, 40~49세가 32.1%(N=108)로 그 뒤를 따랐다.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자가 50.9%(N=171)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37.2% (N=125), 대학원졸 이상이 6.5%(N=22), 마지막으로 중졸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중위수가 310만원이었고, 451만원 이상 22.0%(N=74)과 250만원~310만원 이하 22.0%(N=74)의 가구소득이 동일한 수치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혼인유무로는 기혼이 56.4%(N=216)명으로 미혼 16.4%(N=63)보다 많았다. 창업자금으로는 0~5,000만원 이하가 52.1%(N=17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5,001만원~10,000만원 이하가 32.1%(N=108) 많게 나왔다. 희망하는 창업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이 44.0%(N=148)로 가장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 33.0%(N=111)을 희망하였다.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지역이 64.3%(N=2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이 26.5%(N=8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에 있는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추측되어지나 경기지역에서도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본인을 뺀 나머지 가족 수에서는 1명과 3명이 동일한 수치 25.3%(N=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명 15.2%(N=51)이었다. 직업유형으로는 자영업이 25.6%(N=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전문가가 23.3%(N=7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14.6%(N=49)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로는 ‘보통이다’가 41.4%(N=139), ‘좋다’가 40.8%(N=137)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창업 형태는 이중직업이 57.4%(N=1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창업 52.7%(N=177)을 선호하였다. <표 III-2>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주구역을 세분하게 나누어서 보았을 때, 서울에서 거주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강남구(N=19)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N=17), 성북구(N=13)가 그 뒤를 이었다. 마포구(N=12), 관악구·서대문구(N=11), 강서구·강북구(N=10)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아 교육 장소 근처의 거주자 뿐 만 아니라 그 외의 구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참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36)

변 인	분 류	N(%)	변 인	분 류	N(%)
성별	남 성	176(52.4)	거주 지역	서울	216(64.3)
	여 성	159(47.3)		경기	89(26.5)
연령 (평균 40.7세)	20~29세	44(13.1)		인천	14(4.2)
	30~39세	111(33.0)		기타	10(3.0)
	40~49세	108(32.1)	5)가족 수	1명	85(25.3)
	50세 이상	68(20.2)		2명	51(15.2)
교육 수준	중졸이하	16(4.8)		3명	85(25.3)
	고졸	125(37.2)		4명 이상	26(7.7)
	대졸	171(50.9)	6)전문가	78(23.3)	
대학원졸 이상	대학원졸 이상	22(6.5)	사무종사자	38(11.3)	
	가구소득 (중위수 310만원) (평균417만원)	0~250미만	60(17.9)	서비스, 판매 종사자	49(14.6)
		250이상~310이하	74(22.0)	자영업	86(25.6)
311이상~450이하		62(18.5)	전업주부	28(8.3)	
451이상		74(22.0)	직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4(1.2)
7)혼인유무	기혼	216(56.4)		8)기능 및 조립 종사자	4(1.2)
	미혼	63(16.4)		단순노무 및 기타 종사자	17(5.1)
창업자금 (중위수 5,000만원) (평균7,580만원)	0~5,000이하	175(52.1)		건강상태	무직
	5,001이상~ 10,000이하	108(32.1)	매우 좋지 않다		4(1.2)
	10,001이상	38(11.3)	좋지 않다		17(5.1)
9)희망 창업 업종	제조업	39(11.6)	보통이다		139(41.4)
	건설업	6(1.8)	좋다	137(40.8)	
	도소매업	111(33.0)	아주 좋다	35(10.4)	
	음·숙박업	67(19.9)	희망 창업 형태	벤처 창업	104(31.0)
서비스업 ¹⁰⁾	148(44.0)	인터넷창업		177(52.7)	
				이중직업	193(57.4)
				재택사업	156(46.4)

* 무응답으로 인하여 각 변수마다 합계가 다를 수 있음.

- 5) 본인을 뺀 나머지 가족원 수임.
- 6)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합한 수임.
- 7) 혼인유무에 관한 설문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보고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이 조금 다를 수 있음.
- 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직 및 조립 종사자임.
- 9)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는 한 문항이며 중복응답 가능함.
- 10)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을 말함.

4. 자료의 분석방법

연구문제 1. 사회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혼인유무)에 따라 가족창업을 하려는 동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2. 사회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혼인유무)에 따라 가족원의 참여유형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평균,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3. 사회 인구학적 특성들(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혼인유무)에 따라 가족관련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4. 사회 인구학적 특성들(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혼인유무)에 따라 창업 관련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그리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5. 사회 인구학적 특성들(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혼인유무)에 따라 창업 교육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그리고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IV. 결과 및 해석

1.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창업동기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창업동기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결과는 <표 IV-1~5>와 같다.

1) 성별에 따른 창업동기

<표 IV-1> 성별에 따른 창업동기

(N=335)

변인	분류	성별				F
		남성		여성		
		M	SD	M	SD	
가족 창업 동기	경제적인 문제	3.67	.98	3.60	1.00	.313 (.576)
	노후대책	3.35	1.10	3.58	1.05	3.349* (.068)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3.15	1.18	3.43	1.09	4.120** (.043)
	취미 또는 여가생활	2.28	1.03	2.76	1.32	11.874*** (.001)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3.02	1.14	3.11	1.05	.417 (.519)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2.86	1.15	3.47	3.70	3.691* (.056)
	집에서도 가능해서	2.42	1.15	2.92	1.12	13.384*** (.000)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	2.60	1.15	2.66	1.13	.225 (.636)

*p<0.10, **p<0.05, ***p<0.01

성별에 따른 가족창업의 동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노후대책’,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취미 또는 여가생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집에서도 가능해서’의 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노후대책’은 남성의 평균점수가 3.35점, 여성의 평균점수가 3.58점으로 여성의 평균점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이 노후대책의 대안으로 가족창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여성의 평균점수가 3.43점으로, 남성의 평균점수 3.15점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으로 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취미 또는 여가생활’을 위해서 가족창업을 하려는 것도 역시 여성의 평균점수가 2.76점으로 남성의 평균점수 2.2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창업 동기 중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여성의 평균점수가 3.47점으로 남성의 평균점수 2.86점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자금 지원 문제로 인해 가족창업을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에서도 가능해서’의 동기로도 여성의 평균 점수가 2.92점으로 남성의 평균점수 2.4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택사업이 기혼 여성에게 가사노동 및 재택근로도 가능하기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든 변인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높았다. 여성은 집에서 자녀양육과 가정살림을 돌보면서 경제적인 면도 충족시키며, 새로운 일이나 취미 또는 여가 활동을 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예전의 가정살림만 하던 여성들이, 점차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기 개발 및 성취를 위한 삶을 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창업동기로 ‘경제력’과 ‘자아실현’이 주된 동기로 나타난 최자경(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2) 연령에 따른 창업동기

연령에 따른 창업동기의 차이를 살펴보면, ‘노후대책’,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2> 연령에 따른 창업동기

(N=331)

변인	분류	연령								F
		20-29		30-39		40-49		50이상		
		M	SD	M	SD	M	SD	M	SD	
가족 창업 동기	경제적인 문제	3.51	.85	3.58	1.01	3.77	.88	3.60	1.19	.997 (.394)
	노후대책	2.68	1.01	3.16	1.14	3.78	.94	3.91	.83	17.656*** (.000)
		a		b		c		c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3.41	1.16	3.28	1.10	3.28	1.11	3.24	1.27	.193 (.901)
	취미 또는 여가생활	2.41	.93	2.59	1.39	2.36	1.09	2.70	1.15	1.164 (.324)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3.10	.96	3.08	1.18	2.83	1.14	3.34	.92	2.540* (.057)
		ab		ab		a		b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3.19	1.15	2.90	1.18	3.57	4.41	2.88	1.26	1.183 (.316)
	집에서도 가능해서	2.75	1.14	2.64	1.20	2.56	1.11	2.76	1.17	.430 (.732)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	2.56	1.04	2.36	1.12	2.82	1.13	2.80	1.16	3.206** (.024)
ab			a		b		b			

*p<0.10, **p<0.05, ***p<0.01

먼저 ‘노후대책’은 연령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다. 20대의 평균점수가 2.68점으로 30대의 평균점수 3.16점, 40대의 평균점수 3.78점, 50대 이상의 평균점수 3.91점과 차이를 보였고, 30대의 평균점수 3.16점은 40대 및 50대 이상 연령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40대와 50대는 노후대책으로서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대와 30대, 그리고 40~50대 사이의 노후대책으로서의 창업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는 연령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40대의 평균점수 2.83점과 50대 이상의 평균점수 3.34점이 그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평균점수 3.10점과 30대의 평균점수 3.08점은 비슷한 수준으로 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연령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30대의 평균점수 2.36점과 40대의 평균점수 2.82점과 50대 이상의 평균점수 2.80점에서 그 차이를 보였으나, 20대와 50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인 동기 중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후대책을 위해서 창업을 하겠다는 동기를 중요시 했으며, 40~50대 이상에서 그러한 동기가 높게 나타나, 젊은 연령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라는 동기에 있어서 40대~50대 이상 연령층은 30대보다 더 주변의 창업 성공이 본인의 창업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의 동기에서는 40대의 평균점수가 2.83점, 50대 이상의 평균점수는 3.3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 보다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되어가면서부터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영업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전병유, 2003; 성지미, 2003)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창업동기에 관한 분석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창업동기들에서 연령

이 높을수록 더 창업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다양한 창업동기에 의해서 창업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동기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동기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문제’, ‘노후대책’,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연령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중졸이하 집단의 평균점수 4.26점은 고졸의 평균점수 3.65점 및 대졸집단의 평균점수 3.54점과 그 차이를 보였으며, 대학원졸 이상 집단의 평균점수 3.90점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후대책’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연령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중졸이하 집단의 평균점수 4.00점은 대졸집단의 평균점수 3.20점과 그 차이를 보였으며, 고졸 집단의 평균점수 3.68점과 대학원졸 이상의 평균점수 3.66점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연령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중졸이하 집단의 평균점수 2.53점은 고졸집단의 평균점수 3.25점, 대졸집단의 평균점수 3.31점, 대학원졸 이상 집단의 평균점수 3.66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동기

(N=334)

변인	분류	교육수준								F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M	SD	M	SD	M	SD	M	SD	
가족 창업 동기	경제적인 문제	4.26	.70	3.65	1.05	3.54	.95	3.90	.85	2.959** (.033)
		b		a		a		ab		
	노후대책	4.00	.96	3.68	.99	3.20	1.11	3.66	1.01	6.172*** (.000)
		b		ab		a		ab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2.53	1.50	3.25	1.15	3.31	1.11	3.66	.96	2.709** (.045)
		a		b		b		b		
	취미 또는 여가생활	2.14	1.09	2.50	1.35	2.50	1.05	2.94	1.39	1.229 (.299)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3.23	1.09	3.10	1.20	2.95	1.05	3.50	.78	1.520 (.209)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3.56	1.15	3.47	4.14	2.90	1.13	2.94	1.11	1.078 (.359)
집에서도 가능해서	3.00	1.35	2.62	1.17	2.64	1.14	2.83	1.11	.619 (.603)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	2.84	1.14	2.75	1.19	2.52	1.12	2.52	.87	1.014 (.387)	

*p<0.10, **p<0.05, ***p<0.01

‘경제적인 문제’의 동기에서는 중졸이하의 학력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서 창업동기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답하였다. ‘노후 대책’을 준비한다는 동기에서도 중졸이하 학력집단과 대졸 학력집단에서 차이가 명확히 있었으며 중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는 다른 동기과 반대로 중졸이하의 학력집단에 비해서 학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창업의 동기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른 창업동기들과는 달리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점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새로운 일에 대한 접근은 학력이 높은 경우가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동기

가구소득에 따른 가족창업동기를 살펴본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5)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동기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창업동기를 <표 IV-4>에서 살펴보면, ‘노후대책’, ‘집에서도 가능해서’,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노후대책’으로는 미혼의 평균점수가 3.60점으로 기혼의 평균점수 3.32점보다 가족창업을 하려는 동기가 높아, 배우자의 유무가 노후대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후대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집에서도 가능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으며, 기혼의 평균점수가 2.96점으로 미혼의 평균점수 2.61점보다 가족창업을 하려는 동기가 높았다. 이는 기혼자들은 집안 살림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재택창업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 부록 <표-1>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이유 참조

<표 IV-4>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동기

(N=279)

변인	분류	혼인유무				F
		기혼		미혼		
		M	SD	M	SD	
가족 창업 동기	경제적인 문제	3.61	1.08	3.72	.97	.462 (.498)
	노후대책	3.32	1.07	3.60	1.04	2.913* (.089)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3.50	1.07	3.28	1.16	1.345 (.247)
	취미 또는 여가생활	2.68	1.61	2.50	1.07	.899 (.344)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3.15	.99	3.13	1.10	.008 (.929)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3.25	1.16	3.23	3.39	.002 (.967)
	집에서도 가능해서	2.96	1.30	2.61	1.13	3.324* (.070)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	2.37	1.07	2.73	1.19	3.779* (.053)

*p<0.10, **p<0.05, ***p<0.01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에서도 역시 $p < 0.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였으며, 미혼의 평균점수가 2.73점으로 기혼의 평균점수 2.37점보다 가족창업의 동기가 높아 미혼인 사람들이 창업 시 실제 사례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든 변인에 있어서 기혼자는 재택사업이 가능함으로, 미혼자는 노후대책과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 창업을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난 창업 동기는 아니지만 그 중 가장 중요시 한 동기는 ‘경제적인 문제’이었다.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것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중졸이하의 집단이 고졸 및 대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문제의 창업동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노후대책’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여성이거나, 연령이 높거나, 중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졌거나, 미혼자가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 취미 또는 여가생활’의 동기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연령대가 높은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집에서도 가능해서’ 창업을 하고자 한 것은 상대적으로 여성이거나 기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 창업을 결정한 동기는 평균점이 3점미만으로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에 따른 창업동기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30대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40~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낮았다. 혼인여부에서는 기혼자에 비하여 미혼자가 평균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2.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참여유형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결과는 <표 IV-5~9>와 같다.

1) 성별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성별에 따른 가족참여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배우자’와 ‘1촌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배우자’에서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남성의 68.6%, 여성의 37.7%가 배우자 창업을 위해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와 창업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촌 관계’에서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남성이 20.7%, 여성이 31.4%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부모 등의 1촌과 함께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장에서는 가족창업 동기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집에서도 가능해서’와 같은 가정 관련 요인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함께 창업을 할 가족원을 고려하는 부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배우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였다. 이는 남성들은 창업동기를 가정과 관련하여 찾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창업을 할 때는 배우자의 도움을 중요하게 여기며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5> 성별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N=335)

구분		성별		전체 (%)	χ^2
		남성 (%)	여성 (%)		
배우자	같이함	120 (68.6)	60 (37.7)	180 (53.9)	31.878*** (.000)
	같이안함	55 (31.4)	99 (62.3)	154 (46.1)	
	소 계	175 (100)	159 (100)	334 (100)	
1촌 관계	같이함	36 (20.7)	50 (31.4)	86 (25.8)	5.018** (.025)
	같이안함	138 (79.3)	109 (68.6)	247 (74.2)	
	소 계	174 (100)	159 (100)	333 (100)	
2촌 관계	같이함	63 (36.2)	69 (43.4)	132 (39.6)	1.795 (.180)
	같이안함	111 (36.2)	90 (56.6)	201 (60.4)	
	소 계	174 (100)	159 (100)	333 (100)	
3촌, 4촌 온가족/ /기타	같이함	26 (14.9)	24 (15.2)	50 (15.1)	.377 (.984)
	같이안함	148 (85.1)	134 (84.8)	282 (84.9)	
	소 계	174 (100)	158 (100)	332 (100)	
혼자 함	혼자함	12 (6.9)	13 (8.2)	25 (7.5)	0.211 (.646)
	혼자안함	162 (93.1)	145 (91.8)	307 (92.5)	
	소 계	174 (100)	158 (100)	332 (100)	

* p<0.10 **p<0.05 ***p<0.01

2) 연령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연령에 따른 가족참여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배우자', '1촌 관계', 그리고 '2촌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연령대별 대답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에서 보면 먼저 '배우자'에서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연령대 별로 차이를 보였다. 40대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4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0대~50대 이상은 같이 안 한다고 답한 사람보다 같이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20대~30대는 같이 하겠다는 사람보다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많아 중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배우자와 창업을 더 선호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촌 관계'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에서 38.2%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나, 50대 이상은 자녀와 창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촌 관계'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대에서 60.9%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14.7%로 가장 낮게 나타나 30대는 형제·자매와 함께 창업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연령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N=331)

구 분		연 령				전 체	χ ²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배우자	같이함	19 (43.2)	50 (45.5)	67 (62.0)	41 (60.3)	177 (53.6)	9.172** (.027)
	같이안함	25 (56.8)	60 (54.5)	41 (38.0)	27 (39.7)	153 (46.4)	
	소 계	44 (100)	110 (100)	108 (100)	68 (100)	330 (100)	
1촌 관계	같이함	15 (34.1)	25 (22.7)	19 (17.8)	26 (38.2)	85 (25.8)	11.221** (.011)
	같이안함	29 (65.9)	85 (77.3)	88 (82.2)	42 (61.8)	244 (74.2)	
	소 계	44 (100)	110 (100)	107 (100)	68 (100)	329 (100)	
2촌 관계	같이함	22 (50.0)	67 (60.9)	33 (30.8)	10 (14.7)	132 (40.1)	43.693*** (.000)
	같이안함	22 (50.0)	43 (39.1)	74 (69.2)	58 (85.3)	197 (59.9)	
	소 계	44 (100)	110 (100)	107 (100)	68 (100)	329 (100)	
3촌, 4촌/ 온가족/ 기타	같이함	4 (9.1)	18 (16.5)	22 (20.6)	4 (5.9)	48 (4.6)	10.709 (.554)
	같이안함	40 (90.9)	91 (83.5)	85 (79.4)	64 (94.1)	280 (85.4)	
	소 계	44 (100)	109 (100)	107 (100)	68 (100)	328 (100)	
혼자함	혼자함	3 (6.8)	8 (7.3)	9 (8.4)	5 (7.4)	25 (7.6)	.154 (.985)
	혼자안함	41 (93.2)	101 (92.7)	98 (91.6)	63 (92.6)	303 (92.4)	
	소 계	44 (100)	109 (100)	107 (100)	68 (100)	328 (100)	

* p<0.10 **p<0.05 ***p<0.01

연령에 따른 가족참여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40대는 ‘배우자’와 함께, 50대 이상은 ‘부모 또는 자녀’와 30대에서는 ‘형제·자매’와 함께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것은 가족창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0대의 경우 자녀는 아직 어려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클 것이다.

부모·자식 간의 창업은 주로 50대 이상의 부모와 성장한 자녀로 이루어지며, 이는 자녀가 성장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0대의 경우에는 미혼 또는 결혼기간이 짧아 배우자 또는 노령의 부모와의 창업보다는 형제자매간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령대별로 같이 가족창업을 하고자 하는 가족구성원이 다른 것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 수준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참여유형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와 ‘2촌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답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에서 ‘배우자’에서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와 같이 창업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중졸이하에서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졸 이상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촌 관계’에서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2촌 관계인 형제자매와 같이 창업을 하겠다는 대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졸 이상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가 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와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형제·자매와의 창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7> 교육 수준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N=334)

구분		교육수준				전체	X ²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배우자	같이함	11 (68.8)	78 (62.4)	80 (47.1)	10 (45.5)	179 (53.8)	8.881** (.031)
	같이안함	5 (31.3)	47 (37.6)	90 (52.9)	12 (54.5)	154 (46.2)	
	소계	16 (100)	125 (100)	170 (100)	22 (100)	333 (100)	
1촌 관계	같이함	6 (37.5)	29 (23.2)	46 (27.2)	5 (22.7)	86 (25.9)	1.865 (.601)
	같이안함	10 (62.5)	96 (76.8)	123 (72.8)	17 (77.3)	246 (74.1)	
	소계	16 (100)	125 (100)	169 (100)	22 (100)	332 (100)	
2촌 관계	같이함	1 (6.3)	46 (36.8)	74 (43.8)	10 (45.5)	131 (39.5)	9.413** (.024)
	같이안함	15 (93.8)	79 (63.2)	95 (56.2)	12 (54.5)	201 (60.5)	
	소계	16 (100)	125 (100)	169 (100)	22 (100)	332 (100)	
3촌, 4촌/ 은가족/ 기타	같이함	0 (0.0)	16 (12.8)	30 (17.9)	3 (13.6)	49 (14.8)	8.713 (.727)
	같이안함	16 (100.0)	109 (87.2)	138 (82.1)	19 (86.4)	282 (85.2)	
	소계	16 (100)	125 (100)	168 (100)	22 (100)	331 (100)	
혼자함	혼자함	2 (12.5)	6 (4.8)	17 (10.1)	1 (4.5)	26 (7.9)	3.611 (.307)
	혼자안함	14 (87.5)	119 (95.2)	151 (89.9)	21 (95.5)	305 (92.1)	
	소계	16 (100)	125 (100)	168 (100)	22 (100)	331 (100)	

* p<0.10 **p<0.05 ***p<0.01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참여유형의 차이는 ‘배우자’ ‘형제·자매’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 집단별 가족참여유형의 분석결과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높은 연령집단에서 배우자와 함께 창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관관계분석 결과($r = -.228^{**}$)] 것을 고려할 때,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배우자와의 창업을 더 선호한 것은 교육수준과 연령과의 상관관계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제·자매’와의 창업에 대한 30대의 선호가 고학력 집단에서 높았던 점도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 30대의 형제·자매 창업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4) 가구 소득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가구소득에 따른 가족참여유형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에 대한 선호에서만 $p < 0.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소득 311만원~450만원 이하 집단의 67.7%가 함께 창업을 할 가족구성원으로 배우자를 선호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 451만원 이상 집단은 4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창업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높은 가구소득 311만원~450만원 이하 집단은 중산층 가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계청(2007)에서 2007년 5월 10일에 발표한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325만 1천원이었고, 한국종합사회조사결과를 근거로 규정한 중산층의 범위가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200만원 이상 499만원 이하에 근거한 해석이다(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7).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하여 중산층이 배우자와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은 부부가 이미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창업자의 배우자를 창업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고, 고소득층은 예비창업자의 배우자를 창업에 참여시키지 않아도 노동력을 고용할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창업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 중산층은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저소득층 보다 낮아서 전업주부로 있는 배우자를 창업

시 노동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고, 고소득층에 비하여 유급 노동력을 고용할 만큼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8> 가구 소득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N=270)

구분		가구소득				전체	χ^2
		250미만	250~310	311~450	451이상		
배우자	같이함	34 (57.6)	43 (58.1)	42 (67.7)	34 (45.9)	153 (56.9)	6.648* (.084)
	같이안함	25 (42.4)	31 (41.9)	20 (32.3)	40 (54.1)	116 (43.1)	
	소계	59 (100)	74 (100)	62 (100)	74 (100)	269 (100)	
1촌 관계	같이함	15 (25.4)	22 (29.7)	16 (25.8)	22 (29.7)	75 (27.9)	.561 (.905)
	같이안함	44 (74.6)	52 (70.3)	46 (74.2)	52 (70.3)	194 (72.1)	
	소계	59 (100)	74 (100)	62 (100)	74 (100)	269 (100)	
2촌 관계	같이함	20 (33.9)	25 (33.8)	25 (40.3)	38 (51.4)	108 (40.1)	6.072 (.108)
	같이안함	39 (66.1)	49 (66.2)	37 (59.7)	36 (48.6)	161 (59.9)	
	소계	59 (100)	74 (100)	62 (100)	74 (100)	269 (100)	
3촌, 4촌, 은가족, 기타	같이함	5 (8.5)	15 (20.3)	5 (8.1)	10 (13.7)	35 (13.1)	11.664 (.473)
	같이안함	54 (91.5)	59 (79.7)	57 (91.9)	63 (86.3)	233 (86.9)	
	소계	59 (100)	74 (100)	62 (100)	73 (100)	268 (100)	
혼자함	혼자함	4 (6.8)	6 (8.1)	2 (3.2)	6 (8.1)	18 (6.7)	1.669 (.644)
	혼자안함	55 (93.2)	68 (91.9)	60 (96.8)	68 (91.9)	251 (93.3)	
	소계	59 (100)	74 (100)	62 (100)	74 (100)	269 (100)	

* p<0.10 **p<0.05 ***p<0.01

5)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참여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배우자’, ‘1촌 관계’, ‘2촌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9>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참여유형

(N=279)

구분	혼인유무		전체	χ ²	
	미혼	기혼			
배우자	같이함	9 (15.8)	132 (68.8)	141 (56.6)	50.192*** (.000)
	같이안함	48 (84.2)	60 (31.3)	108 (43.4)	
	소 계	57 (100)	192 (100)	249 (100)	
1촌 관계	같이함	25 (43.9)	39 (20.4)	64 (25.8)	12.598*** (.000)
	같이안함	32 (56.1)	152 (79.6)	184 (74.2)	
	소 계	57 (100)	191 (100)	248 (100)	
2촌 관계	같이함	36 (63.2)	61 (31.9)	97 (39.1)	17.968*** (.000)
	같이안함	21 (36.8)	130 (68.1)	151 (60.9)	
	소 계	57 (100)	191 (100)	248 (100)	
3촌, 4촌/ 은가족/ 기타	같이함	8 (14.0)	27 (14.2)	35 (14.2)	1.114 (.892)
	같이안함	49 (86.0)	163 (85.8)	212 (85.8)	
	소 계	57 (100)	190 (100)	247 (100)	
혼자함	혼자함	3 (5.3)	15 (7.9)	18 (7.3)	.438 (.508)
	혼자안함	54 (94.7)	176 (92.1)	230 (92.7)	
	소 계	57 (100)	191 (100)	248 (100)	

* p<0.10 **p<0.05 ***p<0.01

‘배우자’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혼인유무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혼이 68.8%로 미혼 15.8% 보다 높게 나타나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배우자와 함께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창업을 하겠다는 비율이 낮은 것은 현재 미혼이기 때문에 응답비율이 낮고, 미래에 결혼계획의 유무가 배우자와 함께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1촌 관계’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혼인유무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혼이 20.4%, 미혼이 43.9%로 미혼자의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창업에 대한 선호를 알 수 있었다. ‘2촌 관계’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혼인유무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혼이 63.2%, 기혼이 31.9%로 미혼자가 2촌 관계인 형제·자매와 함께 창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하여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와 함께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함께 창업을 할 가족구성원으로는 ‘배우자’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참여유형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배우자’와 창업을 함께한다고 한 응답자는 교육수준이 낮은 40~50대 기혼 남성 집단이었다. ‘1촌 관계’인 부모 자식 간 가족창업은 50대 이상 및 20대 미혼 여성에서 응답이 높았다. ‘2촌 관계’인 형제·자매와의 가족 창업은 교육수준이 높은 30대 미혼자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가족참여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이 누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배우자와의 창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각 연령집단별로 선호하는 가족구성원이 뚜렷하게 달랐으며,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배우자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형제·자

매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중산층의 배우자와의 창업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기혼보다 미혼의 형제자매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미혼의 경우 부모에 대한 선호보다, 형제자매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3.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 관련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결과는 <표 IV-10~13>까지와 같다.

1) 성별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성별에 따른 가족관련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가족들의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10> 성별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N=335)

변 수	성 별				F
	남성		여성		
	M	SD	M	SD	
가족들의 지지 ¹²⁾	3.64	.85	3.86	.76	6.150** (.014)
가족원에 대한 기대	3.38	1.04	3.43	.96	.227 (.634)
가족원의 직업과 창업의 관련성	2.42	1.25	2.49	1.33	.209 (.648)
가족원의 취미 및 특기와의 관련성	2.72	1.18	2.88	1.24	1.327 (.250)

*p<0.10, **p<0.05, ***p<0.01

12) 6점(말해본적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N=8)은 제외하고 5점 척도로 분석함.

‘가족들의 지지’를 살펴보면, $p < 0.05$ 유의수준에서 성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 여성의 평균점수가 3.86점, 남성의 평균점수가 3.64점으로 여성들이 창업을 하는데 가족들의 지지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가족들의 지지가 있을 때 창업을 결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남성들은 가족의 지지 없이도 독자적으로 창업을 결정할 수 있으나 여성들은 가족원의 지지가 뒷받침 되는 경우에 창업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경영협회¹³⁾에서 여성창업가들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여성의 경우 지원해주는 가족 가까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본 결과와 일치한다(최자경, 2000).

2) 연령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연령에 따른 가족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들의 지지’, ‘가족원에 대한 기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가족들의 지지’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연령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 30대는 평균 3.57점으로 50대 이상의 평균 3.88점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20대와 40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30대보다 50대가 창업을 결정하는 데에 가족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50대 이상의 집단들이 일선에서 물러난 후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들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서는 자신감을 더 상실할 수 있다. 또한 50대 이상의 집단들은 창업을 위해 저축하였던 많은 부분의 자금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50대 이상은 가족들의 지지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 미국경영협회 (AMA: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표 IV-11> 연령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N=331)

변 수	연 령								F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M	SD	M	SD	M	SD	M	SD	
가족들의 지지	3.82	.77	3.57	.77	3.80	.89	3.88	.76	2.663** (.048)
	ab		a		ab		b		
가족원에 대한 기대	3.20	.97	3.23	.98	3.65	1.03	3.42	.96	3.734** (.012)
	a		a		b		ab		
가족원의 직업과 창업의 관련성	2.52	1.33	2.33	1.28	2.50	1.21	2.47	1.36	.407 (.748)
가족원의 취미 및 특기와의 관련성	3.10	1.21	2.68	1.17	2.80	1.21	2.76	1.26	1.128 (.338)

* p<0.10 **p<0.05 ***p<0.01

‘가족원에 대한 기대’에서는 p<0.05 유의수준에서 연령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40대의 평균점수 3.65점은 20대의 평균점수 3.20점, 30대의 평균점수 3.23점과 그 차이를 보였으나, 50대 이상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다른 연령대의 가족원에 대한 기대 수준은 비슷하며, 40대만 가족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0대와 50대를 비교해 보면, 40대는 50대에 비해서 ‘가족들의 지지’는 낮은 반면, ‘가족원에 대한 기대’는 높다. 50대 이상은 ‘가족들의 지지’는 40대에 비해서 높으나,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40대에 비해서 낮다. 즉 50대 이상의 경우 20~30대와 유사하게 가족 구성원도 적고, 가족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적은 반면, 40대의 가정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대가 더 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들의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들의 지지’에서 $p < 0.01$ 유의수준에서 교육수준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표 IV-12>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N=334)

변 수	교육수준								F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M	SD	M	SD	M	SD	M	SD	
가족들의 지지	4.06	.85	3.94	.69	3.63	.84	3.30	.86	6.540*** (.000)
	c		bc		ab		a		
가족원에 대한 기대	3.06	1.06	3.50	1.0	3.34	1.00	3.61	.86	1.517 (.210)
가족원의 직업과 창업의 관련성	3.07	1.49	2.43	1.34	2.44	1.25	2.31	1.04	1.105 (.347)
가족원의 취미 및 특기와의 관련성	3.23	1.53	2.78	1.18	2.80	1.22	2.68	1.17	.613 (.607)

* $p < 0.10$ ** $p < 0.05$ *** $p < 0.01$

사후검정 분석($P < 0.05$) 결과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예비 가족창업자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예비 가족창업자의 ‘가족들의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가족들의 지지’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졸 학력을 가진 집단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고졸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가족들의 지지가 더 높았다. 따라서

<표 IV-12>에서 제시한 4집단(교육수준) 각각의 평균점수 중 고졸집단과 대졸집단 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중졸이하 집단과 대학이상의 집단, 고졸이하 집단과 대학원이상 집단 간의 평균점수를 고려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들의 지지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들의 지지가 적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한 확신이 높은 것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창업을 할 때 본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이 적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할 시에 가족들의 정서적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구소득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가구소득에 따른 가족관련 특성 중 ‘가족들의 지지’, ‘가족원에 대한 기대’, ‘가족원의 직업과 창업의 관련성’, ‘가족원의 취미 및 특기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그 어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¹⁴⁾

5)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원의 직업과 창업의 관련성’에서 혼인유무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가족원의 직업과 창업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미혼이 평균 2.55점으로 기혼 평균 2.19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가족원의 직업과 연관성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

14) 부록 <표-2> 가구소득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참조

과는 성지미(2002), 금재호·조준모(2000)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영업 여부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다. 즉 자녀 중 기혼자에 비해서 미혼자가 부모의 직업과 연관성 있는 창업 업종을 선호하며, 이는 가족창업이라는 특성 중의 한 측면, 즉 부모의 사업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창업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13>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N=279)

변 수	혼 인 유 무				F
	기 혼		미 혼		
	M	SD	M	SD	
가족들의 지지	3.86	.77	3.71	.90	1.597 (.208)
가족원에 대한 기대	3.50	.98	3.35	1.06	.970 (.326)
가족원의 직업과 창업의 관련성	2.19	1.36	2.55	1.30	3.097* (.080)
가족원의 취미 및 특기와의 관련성	2.60	1.18	2.83	1.18	1.547 (.215)

* p<0.10 **p<0.05 ***p<0.01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 창업의 가족관련 특성으로는, 여성이거나 연령이 50대 이상이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0대의 연령에서 ‘가족원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가족원의 직업과 창업의 관련성’은 미혼자가 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높은 연령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성을 저하시키며, 낮은 교육수준은 인적자본이 적게 만든다. 여성은 지원해주는 가족 가까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40대

의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연령이 크게 낮지도 높지도 않기 때문에 창업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여 진다. 창업결정 시 미혼자가 가족원의 직업에 영향을 받는 것은 가족창업이라는 특성상 부모의 사업을 자식세대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자녀에게 부모의 직업과 동일한 직업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교육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이 함께 생활을 하는 ‘가족’이라는 특성상 부지불식간에 다른 가족구성원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익숙해져 모방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창업 관련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결과는 <표 IV-14~18>까지와 같다.

1) 성별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성별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중 ‘창업자금’과 창업분야에서는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 창업형태에서는 ‘신기술 벤처사업’과 ‘재택사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창업자금’을 살펴본 결과 $p < 0.01$ 유의수준에서 성별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평균 8,650.29만원으로 여성 6,360.67만원보다 높게 나타나 예상하는 초기 창업자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지원금’에 있어서는 성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분야에서 ‘음식·숙박업’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성별간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음식·숙박업 24.7%로 여성 15.9%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음식·숙박업을 창업 직종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여성이 52.2%로 남성 38.6%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이 서비스업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형태에서 ‘신기술 벤처사업’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성별간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38.1%로 여성 25.7%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신기술 벤처사업에 여성보다 더 관심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택사업’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성별간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56.7%로 남성의 42.4% 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재택사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택사업이 직업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 역할 수행에 부담감이 있는 여성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여성 친화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김현정, 2004).

<표 IV-14> 성별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N=335)

변 인		성 별			F
		남 성	여 성		
분 류		M(SD)	M(SD)		
창업자금 (중위수 5,000만원)		8,650.29 (7,702.36)	6,360.67 (4,852.38)		9.830*** (.002)
가족 지원금 (중위수 3,000만원)		3,920.73 (3,544.66)	3,487.65 (3,484.77)		.619 (.433)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		3.32 (1.45)	3.30 (1.43)		.028 (.868)
분 류		남 성	여 성	전 체	X ²
		N(%)	N(%)	N(%)	
창업 분야	음식·숙박 업	예	42(24.7)	25(15.9)	3.864** (.049)
		아니오	128(75.3)	132(84.1)	
		소 계	170(100)	157(100)	
	서비스업	예	66(38.6)	82(52.2)	6.143** (.013)
		아니오	105(61.4)	75(47.8)	
		소 계	171(100)	157(100)	
창업 형태	신기술 벤처사업	예	64(38.1)	39(25.7)	5.655** (.017)
		아니오	104(61.9)	113(74.3)	
		소 계	168(100)	152(100)	
	재택사업	예	70(42.4)	85(56.7)	6.377** (.012)
		아니오	95(57.6)	65(43.3)	
		소 계	165(100)	150(100)	

* p<0.10 **p<0.05 ***p<0.01

2) 연령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연령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은 ‘창업자금’,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에서, 창업형태에서는 ‘인터넷 창업’과 ‘이중직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15> 연령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N=331)

변인		연령					F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분류		M(SD)	M(SD)	M(SD)	M(SD)			
		창업자금 (중위수 5,000만원)		6,695.12 (8273.36)	7,063.30 (6820.05)	8,994.29 (6681.53)	6,789.06 (4514.36)	2.387*
		a	a	b	a			
가족 지원금 (중위수 3,000만원)		3,620.00 (4128.86)	3,271.93 (3520.44)	4,516.67 (3506.61)	2,666.67 (2181.36)	2.012	(.114)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		3.35 (1.52)	3.62 (1.43)	3.02 (1.40)	3.18 (1.39)	3.293**	(.021)	
		ab	b	a	ab			
분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소계	χ ²	
		N(%)	N(%)	N(%)	N(%)	N(%)		
창업 형태	인터넷 창업	예	27(62.8)	71(65.1)	51(49.5)	26(41.3)	175(55.0)	11.633*** (.009)
		아니오	16(37.2)	38(34.9)	52(50.5)	37(58.7)	143(45.0)	
		소계	43(100)	109(100)	103(100)	63(100)	318(100)	
	이중 직업	예	32(72.7)	75(68.2)	56(54.9)	28(45.2)	191(60.1)	12.837*** (.005)
		아니오	12(27.3)	35(31.8)	46(45.1)	34(54.8)	127(39.9)	
		소계	44(100)	110(100)	102(100)	62(100)	318(100)	

* p<0.10 **p<0.05 ***p<0.01

먼저, ‘창업자금’을 살펴보면 p<0.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가 가장 높은 예상 창업자금을 투자하려고 하였다. 40대가 가장 높은 예상 창업자금을 투자하려는 것은 평생소득분포를 볼 때 40대가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의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연령 집단이기도 하며, 직장에서 명예 퇴직을 했을 경우 여유자본이 많이 있게 되어 다른 연령집단 보다 창업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0대와 40대에서는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30대가 40대보다 시작하려고 하는 창업과 최근 직업과의 관련이 더 있었으며, 30대는 직업의 경험을 살려서 그 분야에 창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그 어떤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창업 형태에서 ‘인터넷 창업’은 30대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62.8%로 그 뒤를 따랐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 20~30대 보다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중직업’에서는 20대에서 72.7%, 30대에서 68.2%, 그 다음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연령별로 차례대로 이중직업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 30대의 예비 가족창업자가 인터넷창업과 이중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직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동기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20, 30대에게 이중직업 형태의 가족창업은 현재 직업 유지를 통한 직업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미래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은 ‘창업자금’, ‘가족지원금’ 그리고 ‘창

업과 직업과의 관계'에서, 창업 분야에서는 '음식·숙박업'이 창업형태에서 '인터넷 창업'과 '이중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16>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N=334)

변 인		교육수준					F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분 류		M(SD)	M(SD)	M(SD)	M(SD)			
창업자금 (중위수 5,000만원)		5400.00 (1490.45)	6751.67 (4183.10)	8573.33 (8221.00)	6325.00 (4724.72)	2.689** (.046)		
		a	ab	b	ab			
가족 지원금 (중위수 3,000만원)		1812.50 (923.41)	3307.02 (2470.82)	4301.14 (4205.59)	2250.00 (1495.36)	2.505* (.061)		
		a	ab	b	ab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		4.30 (1.18)	3.37 (1.46)	3.21 (1.45)	3.18 (1.18)	2.499* (.060)		
		b	a	a	a			
분 류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진 체	X ²	
		N(%)	N(%)	N(%)	N(%)	N(%)		
창 업 분 야	음식·숙 박업	예	0(0)	37(30.1)	28(16.8)	2(9.1)	67(20.5)	13.987*** (.003)
		아니오	15(100)	86(69.9)	139(83.2)	20(90.9)	260(79.5)	
		소 계	15(100)	123(100)	167(100)	22(100)	327(100)	
창 업 형 태	인터넷 창업	예	2(15.4)	60(48.8)	101(62.0)	14(66.7)	177(55.3)	14.520*** (.002)
		아니오	11(84.6)	63(51.2)	62(38.0)	7(33.3)	143(44.7)	
		소 계	13(100)	123(100)	163(100)	21(100)	320(100)	
	이중 직업	예	3(23.1)	70(58.3)	108(65.5)	11(50.0)	192(60.0)	10.486** (.015)
		아니오	10(76.9)	50(41.7)	57(34.5)	11(50.0)	128(40.0)	
		소 계	13(100)	120(100)	165(100)	22(100)	320(100)	

* p<0.10 **p<0.05 ***p<0.01

먼저 '창업자금'을 살펴본 결과, p<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대출 집단이 평균 8,573만원으로 중졸이하 집단 평균 5,400만원보다 더 높은 예상창업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금’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p < 0.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창업자금에서와 같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대출집단이 많은 가족지원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는 $p < 0.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중졸이하 집단이 평균점수 4.30점으로 고졸~대학원 이상 집단 보다 현재하고 있는 일 또는 직업과 지금 구상하고 있는 창업 직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라서 창업자금이나, 가족지원금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저학력 층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낮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업 분야에서 ‘음식·숙박업’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고졸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이 16.8%, 대학원졸 이상 9.1%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음식·숙박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형태에서 ‘인터넷 창업’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대학원졸 이상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출이 62.0%, 고졸, 중졸이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창업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창업의 경우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매체의 특성상 고학력자들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인터넷 쇼핑몰 등의 활성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쉬운 창업기회가 열리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저학력자들을 오히려 창업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중직업’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대출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이 58.3%로 나타나, 대출에서 이중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직업은 대체로 생계형 창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더 나은 경제적인 풍요를 위하여 여유시간과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중직업에 대해서 대졸 65.5%, 고졸 58.3%로 높은 관심을 보여, 앞으로 이중직업의 여러 형태라든지 새로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4)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은 ‘창업자금’과 ‘가족 지원금’에서, 창업 분야에서는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 창업형태에서는 ‘인터넷 창업’과 ‘이중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창업자금’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은 311만원~45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집단 그리고 451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집단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5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집단이 창업자금을 더 적게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지원금’에서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인 집단과 다른 세 개의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인 집단의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적게 지원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층이 창업에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적고,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금을 낮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학력수준에 따른 창업자금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본 창업 분야에서 ‘음식·숙박업’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가구소득 311만원~450만원 이하의 집단이 3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50만원~310만원 이하의 집단이 23.6%로, 451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집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311만원~45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집단이 창업 아이템으로 음식·숙박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업’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가구소득 451만원 이상의 집단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0만원~310만원 이하의 집단이 31.9%로 가장 낮게 나타나, 451만원 이상 집단이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17>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N=270)

변인		가구소득					F	
		250미만	250~310	311~450	451이상			
분류		M(SD)	M(SD)	M(SD)	M(SD)			
창업자금 (중위수 5,000만원)		5785.71 (3343.73)	7814.86 (7301.11)	8375.00 (5779.58)	8875.00 (8973.26)		2.329* (.075)	
		a	ab	b	b			
가족 지원금 (중위수 3,000만원)		2234.38 (1396.91)	4294.87 (4563.47)	4484.38 (3305.63)	4225.00 (4003.12)		2.801** (.042)	
		a	b	b	b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		3.27 (1.49)	3.21 (1.47)	3.20 (1.45)	3.50 (1.41)		.644 (.587)	
		a	a	a	a			
분류		250미만	250~310	311~450	451이상	전체	χ ²	
		N(%)	N(%)	N(%)	N(%)	N(%)		
창업 분야	음식·숙박업	예	8(13.3)	17(23.6)	24(38.7)	7(9.7)	56(21.1)	19.626*** (.000)
		아니오	52(86.7)	55(76.4)	38(61.3)	65(90.3)	210(78.9)	
		소계	60(100)	72(100)	62(100)	72(100)	266(100)	
서비스업	예	25(41.7)	23(31.9)	25(40.3)	42(57.5)	115(43.1)	10.102** (.018)	
	아니오	35(58.3)	49(68.1)	37(59.7)	61(42.5)	152(56.9)		
	소계	60(100)	72(100)	62(100)	73(100)	267(100)		
창업 형태	인터넷 창업	예	31(53.4)	44(62.0)	26(42.6)	45(63.4)	146(55.9)	7.178* (.066)
		아니오	27(46.6)	27(38.0)	35(57.4)	26(36.6)	115(44.1)	
		소계	58(100)	71(100)	61(100)	71(100)	261(100)	
이중직업	예	32(55.2)	48(70.6)	27(43.5)	45(62.5)	152(58.5)	10.538** (.015)	
	아니오	26(44.8)	20(29.4)	35(56.5)	27(37.5)	108(41.5)		
	소계	58(100)	68(100)	62(100)	72(100)	260(100)		

* p<0.10 **p<0.05 ***p<0.01

이러한 결과는 ‘음식·숙박업’이 자본의 규모에 따른 형태가 다양해서, 예비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다양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별로 투자가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초기 투자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노동의 강도도 낮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창업 분야로 ‘서비스업’, ‘음식·숙박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창업형태에서 ‘인터넷창업’은 451만원 이상 집단에서 63.4%로 가장 선호했으며, 311만원~45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중직업’은 250만원~31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창업’에 대한 선호 분석결과와 같이 311만원~45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석결과로 대학원졸 이상의 사람들, 가구소득의 결과에서는 451만원 이상 집단 사람들이 인터넷창업을 선호하였다. 다시 말해 고학력이거나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인터넷 창업을 선호하며, 그들은 타 집단에 비하여 전문지식이 더 많아 무점포로 운영할 수 있고, 노동력이 덜 들어가며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창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혼인 유무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은 창업 분야에서 ‘서비스업’에, 창업형태에서는 ‘신기술 벤처사업’과 ‘이중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관련 특성 중 ‘창업자금’, ‘가족지원금’ 그리고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8>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N=279)

변인			혼인유무			X ²
			미혼	기혼	전체	
분류			N(%)	N(%)	N(%)	
창업 분야	서비스업	예	31(54.4)	77(40.7)	108(43.9)	3.311* (.069)
		아니오	26(45.6)	112(59.3)	138(56.1)	
		소계	57(100)	189(100)	246(100)	
창업 형태	신기술 벤처사업	예	14(25.0)	60(32.3)	74(30.6)	1.068** (.031)
		아니오	42(75.0)	126(67.7)	168(69.4)	
		소계	56(100)	186(100)	242(100)	
	이중직업	예	40(71.4)	100(54.1)	140(58.1)	5.330** (.021)
		아니오	16(28.6)	85(45.9)	101(41.9)	
		소계	56(100)	185(100)	241(100)	

* p<0.10 **p<0.05 ***p<0.01

창업 분야에서 ‘서비스업’은 p<0.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미혼 54.4%로 기혼 40.7%보다 높게 나타나 미혼자가 서비스업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동력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가에 따라 업종선호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창업 형태에서 ‘신기술 벤처사업’과 ‘이중직업’은 p<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기술 벤처사업’에서는 기혼이 32.3%로 미혼 25.0%보다 높게, ‘이중직업’에서는 미혼이 71.4%로 기혼 54.1%보다 높게 나타나 기혼은 벤처사업을 미혼은 이중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는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 두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미혼자가 기혼자 보다 ‘이중직업’을 선호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을 알아본 결과 ‘창업자금’은 40대 연령 또는 남성이거나 대졸학력자가 창업자금을 가장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하여 평균 약 2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구의 소득규모가 클수록 여유자금이 많아 창업에 투자할 여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에 대한 가족지원금도 40대 연령, 또는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지원금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들이 창업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자금 지원 시에 투자대상으로서 고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창업분야에 있어서는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노동의 강도가 높은 만큼 남자가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었고, ‘서비스업’은 여성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은 미혼 여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형태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기술 벤처사업형태’는 기혼 남성의 선호가 높았으며, 여성은 ‘재택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서 집안일과 창업을 같은 장소 내에서 병행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에 따라서 창업형태에 차이가 있었는데 20~30대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접근이 더 용이한 인터넷 창업에 관심이 높았으며, 주로 대졸이상의 학력이거나 250만원~31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20~30대 연령층은 창업에 있어서도 주업이 아닌 이중직업 형태의 창업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는 인터넷 창업에 관심이 높은 것과는 연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20~30대의 낮은 연령층은 부업형태의 무점포로 인터넷을 통한 창업을 선호하고 있었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창업자금도 가장 풍부하고 새로운 주업을 창업하는 형태의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있어서 연령대에 따른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창업 교육 선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결과는 <표 IV-19~23>까지와 같다.

1) 성별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표 IV-19> 성별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N=335)

구분		성별		전체 (%)	χ^2	
		남성 (%)	여성 (%)			
창업 관련 정보	인터넷 사이트	예	111 (67.3)	85 (55.6)	196 (61.6)	4.609** (.032)
		아니오	54 (32.7)	68 (44.4)	122 (38.4)	
		소계	165 (100)	153 (100)	318 (100)	
	TV/라디오	예	13 (7.9)	22 (14.5)	35 (11.0)	3.503* (.061)
		아니오	152 (92.1)	130 (85.5)	282 (89.0)	
		소계	165 (100)	152 (100)	317 (100)	
	가족이나 친구	예	38 (23.0)	57 (37.7)	95 (30.1)	8.123*** (.004)
		아니오	127 (77.0)	94 (62.3)	221 (69.9)	
		소계	165 (100)	151 (100)	316 (100)	

* p<0.10 **p<0.05 ***p<0.01

성별에 따른 창업 교육선호를 분석해 본 결과, 창업 관련정보는 어디서 얻는가라는 질문에 ‘인터넷 사이트’, ‘TV/라디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는 남성이 67.3%로 여성 55.6%보다 더 높아 여성보다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창업관련 정보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V/라디오’에서는 여성이 14.5%, 남성이 7.9%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사일로 인하여 남성보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는 여성이 37.7%로 남성 23.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유의한 변수들 중 가족이나 친구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고도로 유의하게 나타나 여성의 경우 주변의 입소문이 창업정보를 얻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 인터넷에 대한 정보의존율이 각각 67.3%, 55.6%로 다른 정보원(라디오, 가족친지)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 창업정보의 인터넷 의존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령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연령에 따른 창업 교육선호를 분석한 결과, 창업관련정보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창업교육주제에서는 ‘재무관리’, ‘마케팅’, 그리고 ‘사업아이디어의 개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창업관련정보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살펴보면, 30대에서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이 3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창업교육주제에서 ‘재무관리’를 살펴보면, 30대에서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14.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마케팅’에서는 20대에서 58.5%로 가장 높게, 40대에서 35.3%로 가장 낮았다. ‘사업아이디어의 개발’에서는 50대 이상이 41.9%로 가장 높게 20대에서 2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50대 이상의 은퇴창업의 경우 사업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도움이 가장 절실한 반면 20대의 청년창업의 경우 이미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이후의 경영에 관한(재무관리, 마케팅) 교육을 받기를 원하였다. 연령대별로

20대는 ‘마케팅’, 30대는 ‘재무관리’, 50대 이상에서는 ‘사업아이디어의 개발’을 주제로 한 창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0> 연령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N=331)

구 분		연 령				전 체	χ ²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창업 관련 정보	인터넷 사이트	예	27 (62.8)	85 (78.0)	63 (61.2)	20 (32.8)	195 (61.7)	33.844*** (.000)
		아니오	16 (37.2)	24 (22.0)	40 (38.8)	41 (67.2)	121 (38.3)	
		소계	43 (100)	109 (100)	103 (100)	61 (100)	316 (100)	
창업 교육 주제	재무 관리	예	11 (26.8)	30 (27.5)	17 (16.7)	9 (14.5)	67 (21.3)	6.266* (.099)
		아니오	30 (73.2)	79 (72.5)	85 (83.3)	53 (85.5)	247 (78.7)	
		소계	41 (100)	109 (100)	102 (100)	62 (100)	314 (100)	
	마 케 팅	예	24 (58.5)	43 (39.4)	36 (35.3)	22 (35.5)	125 (39.8)	7.359* (.061)
		아니오	17 (41.5)	66 (60.6)	66 (64.7)	40 (64.5)	189 (60.2)	
		소계	41 (100)	109 (100)	102 (100)	62 (100)	314 (100)	
	사업 아이 디어 의 개발	예	9 (22.0)	26 (23.9)	33 (32.7)	26 (41.9)	94 (30.0)	7.771* (.051)
		아니오	32 (78.0)	83 (76.1)	68 (67.3)	36 (58.1)	219 (70.0)	
		소계	41 (100)	109 (100)	101 (100)	62 (100)	313 (100)	

* p<0.10 **p<0.05 ***p<0.01

3)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교육선호를 분석해 본 결과, 창업관련정보 중 ‘인터넷 사이트’, ‘가족 또는 친구’ 그리고 ‘기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창업관련정보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살펴보면, 대졸이 68.7%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이하에서 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 또는 친구’에서는 중졸이하에서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에서는 중졸이하에서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에서 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수준별 창업관련정보는 대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으며, 중졸이하에서는 ‘가족 또는 친구’와 다른 ‘기타’ 방법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든 변수 중에서 특히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예전에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점포입지, 유동인구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면, 시대의 변화로 인해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원하는 창업 교육주제는 ‘시장조사’가 대졸에서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졸 이상에서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는 대학원졸 이상에서 61.9%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중졸이하에서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나, 낮은 참가율을 보였다. 이는 중졸이하 학력의 경우 낮은 학력에 따른 교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의지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수준별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제공되는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대졸 이상 학력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경영학적인 측면의 교육이 많아 저학력자의 경우 이론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부담이 크고 교육효과도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체험창업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학력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1>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N=334)

구 분		교육수준				전 체	χ^2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창업 관련 정보	인터넷 사이트	예	3 (20.0)	67 (56.8)	112 (68.7)	15 (68.2)	197 (61.9)	16.061*** (.001)
		아니오	12 (80.0)	51 (43.2)	51 (31.3)	7 (31.8)	121 (38.1)	
		소계	15 (100)	118 (100)	163 (100)	22 (100)	318 (100)	
	가족 or 친구	예	7 (46.7)	44 (37.3)	41 (25.5)	3 (13.6)	95 (30.1)	9.338** (.025)
		아니오	8 (53.3)	74 (62.7)	120 (74.5)	19 (86.4)	221 (69.9)	
		소계	15 (100)	118 (100)	161 (100)	22 (100)	316 (100)	
	기타	예	3 (18.8)	12 (9.6)	7 (4.1)	2 (9.1)	24 (7.2)	6.872* (.076)
		아니오	13 (81.3)	113 (90.4)	164 (95.9)	20 (90.9)	310 (92.8)	
		소계	16 (100)	125 (100)	171 (100)	22 (100)	334 (100)	
	교육 프로 그램 참여	예	2 (18.2)	29 (27.4)	54 (35.1)	13 (61.9)	98 (33.6)	10.718** (.013)
		아니오	9 (81.8)	77 (72.6)	100 (64.9)	8 (38.1)	194 (66.4)	
		소계	11 (100)	106 (100)	154 (100)	21 (100)	292 (100)	
창업 교육 주 제	시장 조사	예	2 (14.3)	22 (18.5)	49 (30.6)	3 (13.6)	76 (24.1)	7.821* (.050)
		아니오	12 (85.7)	97 (81.5)	111 (69.4)	19 (86.4)	239 (75.9)	
		소계	14 (100)	119 (100)	160 (100)	22 (100)	315 (100)	

* p<0.10 **p<0.05 ***p<0.01

4)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표 IV-22>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N=270)

구 분			가구소득				전 체	X ²
			250미만	250~310	311~450	451이상		
창업 관련 정보	신문 or 창업 관련 잡지	예	21 (35.6)	14 (19.4)	22 (36.7)	25 (35.7)	82 (31.4)	6.635* (.084)
		아니오	38 (64.4)	58 (80.6)	38 (63.3)	45 (64.3)	179 (68.6)	
		소계	59 (100)	72 (100)	60 (100)	70 (100)	261 (100)	
창업 교육 주 체	마 케 팅	예	21 (35.6)	23 (32.4)	21 (35.0)	42 (59.2)	107 (41.0)	13.454*** (.004)
		아니오	38 (64.4)	48 (67.6)	39 (65.0)	29 (40.8)	154 (59.0)	
		소계	59 (100)	71 (100)	60 (100)	71 (100)	261 (100)	

* p<0.10 **p<0.05 ***p<0.01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교육선호를 분석해 본 결과, 창업관련정보 중 ‘신문 또는 창업관련 잡지’와 창업 교육주체 중 ‘마케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창업관련 정보 중 ‘신문 또는 창업관련 잡지’를 살펴보면, 311만원~45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집단에서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0만원~31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집단이 1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창업교육주체 중 ‘마케팅’ 부분에서는 451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집단이 59.2%로 가장 높았으며, 250만원~31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창업교육주체로 고소득으로 분류한 451만원 이상 소득집단에서 타 집단에 비해 2배 정도의 마케팅 분야에 대한 교육 선호를 보여 창업 시에 필요한 정보나 교육보다 운영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창업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5)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표 IV-23>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

(N=279)

구분			혼인유무		전체 (%)	χ^2
			미혼 (%)	기혼 (%)		
창업 관련 정보	TV/라디오	예	11 (19.6)	16 (8.6)	27 (11.2)	5.293** (.021)
		아니오	45 (80.4)	170 (91.4)	215 (88.8)	
		소계	56 (100)	186 (100)	242 (100)	

* p<0.10 **p<0.05 ***p<0.01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교육선호를 분석해 본 결과, 창업관련정보 중 다른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창업관련정보를 얻는 항목 중 ‘TV/라디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이 19.6%로 기혼 8.6%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 집단이 ‘TV/라디오’에서 창업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자가 시청각매체에 기혼자보다 더 노출되어 있으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 교육 선호를 알아본 결과 창업관련정보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는 얻는 측면에 있어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으며, 특히 20~30대의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이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TV/라디오’ 또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하여 미혼 여성들이 정보를 타 집단에 비하여 정보를 더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정보습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창업교육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구분이 되는 것은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재무관리, 마케팅 분야의 경영관리에 관련된 교육을 선호하였고, 50대 이상의 중년층에서는 사업아이디어에 관한 ‘어떤 창업을 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교육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형태는 연령집단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고, 선호하는 교육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이에 따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서 대학원졸 이상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종졸이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종졸이하 학력자에 대하여 참여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의 발달과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다른 선진 국가와는 달리 빠르게 고령자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할 겨를도 없이 고령자들은 긴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일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 졸업 후 처음부터 취업이 아닌 창업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또 은퇴라고 하는 연령에 의한 구속이 없는 직업으로서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창업 중에서 특히 가족창업은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헌신적인 자세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각광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예비 가족창업자의 창업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혼인유무)에 따라서 창업동기, 가족원 참여, 가족관련 특성, 창업관련특성 그리고 창업교육프로그램선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 가족창업자 336명이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과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그리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 동기와 이유에 있어서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창업의 이유는 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창업동기 중 ‘경제적인 문제’와 ‘노후대책’의 평균점이 가장 높아 중요한 창업동기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인 이유보다 자기개발을 위하여 ‘취미 또는 여가’의 수단으로, 또 ‘집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이상에서 ‘노후대책’을 가장 큰 창업동기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의 창업동기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 창업을 결심한 사람들은 30대보다는 40~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중졸이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노후대책’의 창업동기가 높았지만, 타 집단에 비하여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의식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소득은 창업동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층계층에 따라 창업동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기혼자들이 상대적으로 ‘노후대책’과 ‘재택창업’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예비 가족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만 그 외에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자기개발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을 하고 싶은 욕구 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요구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창업 준비과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92.5%가 혼자가 아닌 가족원과 함께 창업하기를 원했고, 중복응답이지만 ‘배우자’와 같이 창업하고자하는 비율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자매’(2촌 관계), ‘부모·자식’ 간(1촌 관계)의 순서이었다. 이 중 ‘배우자’에 대한 선호는 성별로는 남성이거나, 연령으로는 40대이거나, 학력으로는 중졸이

하이거나, 가구소득으로는 311만원~450만원 이하(도시가구평균소득 보다 높음)사이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가족의 의미가 점차 사라져 가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배우자’ 창업에 대한 높은 선호는 예전과는 부부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가장 가깝고 또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구성원들 중에서 배우자가 가장 우선순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가족참여 선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성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은 ‘배우자’와 여성은 ‘자녀’와 창업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40대는 ‘배우자’, 50대 이상은 ‘자녀’, 30대는 ‘형제·자매’와 창업을하기를 원했다.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이하의 집단은 배우자와,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은 ‘형제·자매’와 함께 창업을하기를 희망했다.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311만원~45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배우자’와 함께 창업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서 중산층에서 배우자와 같이 창업하기는 원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혼인유무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혼자는 ‘배우자’와 창업하기를 원했고, 미혼자는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창업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참여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가족원들 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누구인가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혼인유무와 연령대에 따른 가족참여유형의 선호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배우자’와의 창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각 연령집단별로 선호하는 가족구성원이 뚜렷하게 달라서 30대에서는 ‘형제·자매’에 대한 선호가 20대와 50대에서는 ‘부모·자식’ 간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창업 지원정책이 예비창업자 개인만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범위를 가족원을 포함하거나 가족단위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셋째,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련 특성을 보면 ‘가족들의 지지도’가 전체적으로 평균점이 3점대 이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가족구성원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들의 지지’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 예비창업자들이 더 높았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 예비창업자들이 가족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가족원에 대한 기대’가 타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참여유형에서 ‘배우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볼 때,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나 은퇴 후 창업자들이 가족들의 높은 지지와 후원을 받고 창업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면 가족들의 지지 없이는 창업을 결정하기 힘든, 창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예비 가족창업자 가정에 대한 가족 지지의 중요성, 가족관계 변화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한 지원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가족들의 지지’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가족 간의 유대감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혼인유무에 따라서는 가족원의 지지나 기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만 미혼자의 경우에 창업시에 가족원의 직업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창업관련 특성에 있어서 예비 가족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창업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더 많은 ‘창업자금’을 예상하고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음식·숙박업’에 여성은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창업형태에서 남성은 ‘신기술 벤처사

업'을, 여성은 '재택사업'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에서는 40대에서 가장 많은 '창업자금'과 '가족지원금'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에서 '창업을 하려는 업종과 최근 직업 간에 관련'이 많았으며, 창업 형태로 20~30대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접근이 더 용이한 '인터넷 창업'에 관심이 높았으며, 30대는 '이중직업' 형태를 선호하였다.

또한 중졸이하의 집단에서 '창업을 하려는 업종과 최근 직업 간에 관련성'이 많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음식·숙박업'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창업'을, '이중직업'은 대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다른 설문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거의 없었으나, 창업분야 및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250만원 미만 집단에서 적은 '창업자금'과 적은 '가족 지원금'을 예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식·숙박업'은 311만원~450만원 이하에서 '서비스업'은 451만원 이상에서 가장 선호했으며, 451만원 이상에서 '인터넷 창업'을 그리고 250만원~31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에서 '이중직업'을 원했다. 가구소득은 자본의 많고 적음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창업분야 및 창업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혼인유무에서는 미혼자는 '서비스업'과 '이중직업'을, 기혼자는 '신기술 벤처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30대의 낮은 연령층은 부업형태의 무점포로 인터넷을 통한 창업을 선호하고 있었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창업자금도 풍부하여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있어서 연령대에 따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선호하는 업종, 형태, 창업자금의 수준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각 집단별 선호와 요구, 창업자금 수준에 맞는 창업 아이템 선정, 업종이나 형태의 결정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창업 교육 선호에 있어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은 ‘TV/라디오’나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창업관련 정보를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정보습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연령대에서는 30대가 주로 ‘인터넷 사이트’에 창업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30대는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원했으며, 20대는 ‘마케팅’, 50대 이상은 ‘사업아이디어 개발’에 관해 교육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중졸이하는 ‘가족 또는 친구’에게 또는 ‘기타’에서 창업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경영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선호하였고, 50대 이상의 중년층에서는 ‘사업아이디어’와 관련된 ‘어떤 창업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교육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원졸 이상에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높았고, 대졸에서 ‘시장조사’를 주제로 한 교육을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주제 선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구분이 되는 것은 창업형태는 연령집단별 선호의 뚜렷한 차이가 있었고, 선호하는 교육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 연령집단별 선호를 고려할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창업정보의 전달, 교육방식, 교육내용 등도 예비창업자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연령대층이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창업정보를 얻는 여성, 저학력집단 등의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참여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선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창업의 동기, 가족참여유형, 가족관련 특성, 창업관련 특성 및 창업교육선호에 있어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되었다. 가족기업의 창업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누구인가에 따라 가족창업구성원이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동력의 양과 질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기업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원의 지지 및 지원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의 동기가 주로 ‘경제적인 문제’ 및 ‘노후대책’이 가장 많았지만, 자기개발이나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와 관련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창업에 참여할 가족구성원에 있어서도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느냐, 경영에 같이 참여하여 한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경영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도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창업의 분야나 형태가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분야를 소개하고,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제언

1) 본 연구결과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연령에 관계없이 5년 이내에 가족창업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가족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5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50대 이후의 은퇴 후 가족창업을 원하는 연령층에 대한 연구결과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그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원하며, 자녀와 함께 창업을 하기를 원하였고, 또 가족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기를 원했다. 따라서 고령자들을 위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그들을 도와야 할 노동력으로 자녀들을 원하였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은 부모세대가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예를 들면, 자녀세대들은 창업자인 부모가 고객들과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능력 및 인터넷 환경에 적응을 도와 줄 수 있다. 이렇듯 어떠한 역할과 방법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창업활동과 기업활동을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따라서 창업을 하고자하는 고령자층과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여가 및 취미 생활 등 자기개발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가족창업을 계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은 재택사업을 원하였으며,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 이를 토대로 그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며 재택 사업을 원하는 경우는 자녀가 어린 경우의 여성으로, 자녀와 함께 창업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령층 여성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에서도 여성을 하나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여성의 가정생활주기, 어린자녀의 유무, 연령 등을 고려한 가족창업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미 및 특기를 살릴 수 있고, 여성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 소개 및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고령자일 경우에는 창업 아이템 및 창업 지식에 대한 정보획득이 젊은층보다 늦을 수밖에 없으므로, 창업 아이템 소개에 관한 부분이 더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학력 층은 경제적인 문제와 노후대책으로 창업을하기를 원하였으며,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창업 시 큰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높았다. 본 연구의 창업교육선호에 대한 결과에서는 대학원졸 이상의 사람들이 창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저학력 층의 접근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가족창업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딱딱한 형식의 프로그램 보다는 실제 창업 경험이 있는 강사 및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에 대한 창업 아이템보다는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을 위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며,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된 분야에서 창업업종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을 고려한 창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을 시작하는 것은 한 개인이지만, 그 창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원의 도움이 정신적인 면으로, 물질적인 면으로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가족창업자와 그 가정 및 몇몇 가정의 가

족구성원이 함께 모여 창업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창업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가정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족원이 직접 창업에 참여하거나 또는 가족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창업자 외의 가족원들이 창업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으로 발생하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변화와 예측되는 어려움을 가정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규모 가족창업의 경우 ‘가족영역’과 ‘기업영역’의 구분과 각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가족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소규모 가족기업은 가정생활과 기업 활동이 분리되지 않고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 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과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혼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금전관리 및 금전배분, 업무 분리 및 업무상태 태만 등이 이에 속하며, 이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가정영역과 기업영역 경영상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한 조사대상선정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여성경제인협회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에 대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연구대상이 소자본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이용자에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비교를 실시하였고, 집단을 나누는 과정에서 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예, 교육수준에서 중학교 이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집단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

하였으나 5가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만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 그 외의 특성들(건강상태, 개인 소득, 주거지역 등)에 관해서 알아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는 단변량 분석에 그쳤으나, 영향력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나타나는 특정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위한 다변량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주제의 측면에서는 창업자와 가족들 간의 관계, 특히 본 연구에서 가족참여유형 중 배우자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온 것을 고려해 볼 때, 예비창업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창업자 가족 전체의 특성, 예를 들면 가족의 적응성 및 응집성, 가족건강성의 정도가 가족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창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비 가족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비 가족창업자의 창업특성에 관해 연구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를 가지며, 연구결과는 가족창업지원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가족창업에 관한 창업교육프로그램개발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후속연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선강(2007). 생활과학과 소자본창업, 한국생활과학회 2007년도 춘계 학술대회, 93-100.
- 곽인숙·이경희(2000). 소규모 가족기업 소유자의 사업장 위치와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 38(7), 27-37.
- 금재호·조준모(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S), 81-107.
- 김병숙(2003). 우리나라 정년제의 도입배경 및 실시현황.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년 봄호, 285-312.
- 김석웅(2002). 가족기업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 24(1), 187-213.
- 김순미·홍성희(2000).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재정상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0), 181-197.
- _____ (2000).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7), 13-26.
- 김영선·옥선화(2005). 가족기업 종사자의 일-가족갈등 및 직업만족도와 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223-239.
- 김우영(2000). 취업형태 비교우위 자영업주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3(S), 55-80.
- _____ (2001). 남녀 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 분석. 노동경제논집, 24(2), 1-34.
- 김지희(1999). 가족기업(Family business)의 양가속성 및 이중기능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87-101.
- _____ (2001). 가족기업 창업 및 경영론, 삼성출판사.

- 김지희 · Strafford Kathryn(2002). 가족기업 종사 이중역할 수행자의 가족 자원관리행동유형 분석: 한국과 미국 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43-56.
- 김철교 · 박선호 · 강길원 · 김성권(2005). 창업론, 삼영사.
- 김현정(2004). 재택가족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연 · 김성희(2000).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소규모 가족기업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참여유형. 대한가정학회지, 39(7), 1-12.
- 남영호(1999). 기업가정신과 가족기업- 연구영역 및 관련성을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2(1), 3-29.
- _____ (2000). 가족기업의 이사회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2(2), 137-164.
- _____ (2002). 가족기업의 경영특성에 관한 연구: 귀금속 · 보석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24(4), 201-224.
- _____ (2005). 가족기업의 승계계획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8(1), 57-78.
- 류재우 · 최호영(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109-140.
- 문숙재 · 김지희(1997). 가족기업(Family business)경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대한가정학회지, 35(6), 317-334.
- 문숙재 · 김지희 · Ramona. K. Z. Heck(1998). 재택근무 가정의 실태 및 개념적모델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3), 207-224.
- 문숙재 · 최자경(2001). 여성창업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1), 61-78.
- 박은주(2002). 고령자 창업 욕구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춘엽(2004). 창업학, 동국대학교출판부.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1), 161-182.
- 성지미·안주엽(2002).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2(3), 101-136.
- 손동원·김현태(2006).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경문사.
- 송지영(2001). 가족기업 창업으로의 전환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전직이 임금직인 경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주엽(2000).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23(S), 109-132.
- 안주엽·성지미(2003).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26(2), 1-30.
- 이상석(2006).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8(4), 45-64.
- 이상석·고인곤(2006). 기업과 정신과 창업, 학현사.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학회, 22(1), 121-146.
- 이종호(2002).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09.
- 장지연·호정화(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2(2), 1-21.
- 정영금(1999). 여성취업의 대안으로서의 가족기업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7(11), 125-138.
- _____(2000). 가족기업연구의 활용성과 전개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1-12.

- _____ (2001). 소규모 가족기업의 경영실태진단. 대한가정학회지, 19(4), 121-135.
- _____ (2001). 교육과정 평가를 통한 가족기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29-143.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전방지(2001). 여성 중소기업인의 창업과 경영방식. 중소기업연구, 24(2), 61-87.
- 조경동(2004). 소자본 기업 창업론. 형설출판사.
- 차성란(2001). 가족기업경영 가정의 직업 및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9), 121-135.
- 차성란, 정영금(2000). 가족기업의 개념과 연구현황, 한국가족자원관리학회 학술발표회.
- 최자경(2000). 여성창업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여성개발원(2004). 여성전문 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 한정화(2005). 벤처창업과 경영전략, 홍문사.
- 홍경아(2002). 가족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희(2000). 가족기업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의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38(9), 19-32.
- _____ (2005). 소규모자영업분야의 경제적 성과와 직업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5-126.
- Alistair R. Anderson, Sarah L. Jack, Sarah Drakopoulou Dodd(2005). The Role of Family Members In Entrepreneurial Network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Family Firm, *Family Business Review*,

18(2), 135-154.

Arnoff, C. E. & Ward, J. L.(1991). Family Business Sourcebook, Detroit, MI, *Omnigraphics, Inc.*, 98-119.

Blanchflower, David, and Oswald Andrew J. (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26-60.

Breen, J., Calvert, C., and Oliver, J.((1995). Female Entrepreneurs in Australia, An Investigation of Financial and Family Issues,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Vol. 3, No. 4, 445-461.

Bregger, J. E. (1996). Measuring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January/February, 3-9.

Bruce, D. (1998). "Do Husbands Matter? Married Women Entering Self-Employment." *Working paper, presented at CILN Conference*, Canada, Ontario.

Capowski, G. S.(1992). "Be Your Own Boss? Millions of Women get Down to Business," *Management Review*, March, 24-30.

Davis, J. A. & Tagiuri, R.(1982). Bivalent Attributes of the Family Firm, Santa Barbara, CA, Owner Managed Business Institute.(reprinted in Arnoff, C. E. & Ward, J. L.(1991))*Family Business Source book, Detroit, MI, Omnigraphics, Inc.* 62-73.

Deng, S., Hassan, L., and Jivan, S.(1995). Female Entrepreneurs Doing Business Asia, A special Investig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NO. 12, 60-80.

Evans, David S. and Jovanovic, Boyan.(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808-27.

Evans, David S. and Leighton, Linda. (1989). "Some Empirical Aspect of

-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 519-35.
- Fried, Lisa I. (1989). " A New Breed of Entrepreneur-Women ",
Management Review, December, 18-25.
- Hisrich, R. D. and Brush, C.(1984). The Women Entrepreneur:
Management Skills and Business Proble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22, No. 1, 30-37.
- _____(1987). Women Entrepreneurs: A Longitudinal Study,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187-189.
- Hout. M. & H. Rosen. (1999). "Self-Employment, Family Background,
and Race." *NBER Working Paper* 7344.
- Howard E. Aldrich, Jennifer E. Cliff(2003). The pervasive effects of
family on entrepreneurship: toward a family embeddedness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57-596.
- Ibrahim, A. A. & Ellis, W. H.(1994). Family Business Management:
Concept and Practice, Dubuque, IO: Kendall/Hunt Publishing.
- Jovanovic, Boyan(1982). "The Selection and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50, 649-70.
- Lee-Gosselin, H. and Grise, J.(1990). Are Women-Owners Challenging
Our Definitions of Entrepreneurs? An In-Depth Survey. *Journal
of Ethics*, Vol. 9, No. 4, 423-435.
- Lucas, Robert (1978).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9, 508-23.
- Moore, Robert L. (1983). "Employment Discrimination, Evidence form
Self-Employed Work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496-501.

Morris, E. W., & Winter, M. (1976). A Theory of Family housing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79-88.

국세청(2007).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 쉬운 세금, 국세청.

네이버백과사전(2007).

넥스트 이코노미지(2007). '가족창업이 대세', 27호.

노동부(2007). 고령자 고용현황조사. 보도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인적자원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세계보건기구(2007). 세계보건통계 2007.

엠피스사전(2007).

영진사이버대학(2007). '창업과 경영' 과목 교안.

월간B&F(2003). '20대 창업 늘었지만 연매출 없는 곳이 절반'. 7월호

인터넷 연합뉴스(2006). 송년기획: 당신의 '인생 후반전' 준비는? 12월 20일자.

주간한국(2007). '회사원 3명 중 1명 "창업하고 싶다"', 2157호.

중소기업중앙회(2006). 소상공인 창업 성공·실패 요인조사 설문표.

중소기업청(2007). 07년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발표 보도자료.

통계청(2006).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결과

통계청(2006). 2006년 고령자 통계자료

한국여성개발원(2004). 여성 전문 인력의 창업활동 심층 면접지.

통계청 <http://www.nso.go.kr/>

포항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http://www.postechvbi.com>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ABSTRACT

A Study on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nascent Family Entrepreneurs

Kang, Mi uk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on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 for pre family entrepreneurs aims to be groundwork for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program, b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motivations, type of family involvement, family related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ccording to social and demographical aspects, such as sex, age, level of education, family income and marriage status.

Recently entrepreneurship is one of the most spotlighted types of jobs in our society. The reason is that it has no age limits for retirement and we can choose types of jobs ourselves as we wish. Especially, family entrepreneurship among other entrepreneurships has more meanings due to reliability between family members. Nevertheless there are numerou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only running

education programs for general entrepreneurship. Therefore this research understands the necessity of adequate programs for family entrepreneurship and focuses on analyses of its characteristics.

The target of this research was total 383 individuals, excluding 47 problematic individuals, living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regardless of age. In order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Crosstabs has been used.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results of the survey:

First, the most meaningful reasons of family entrepreneurship were the possibility of working at home or of having hobby and spare time in sex. Also the possibilities of preparedness after retirement, of working at home or of witnessing successful families are shown as reasons in marriage status. Among motivations of entrepreneurship, women desire entrepreneurship for having hobby and spare time and especially prefer to work at home due to education of their children.

Second, for family members of starting the business together, starting with partner marked high percentage in all social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especially it marked the highest in sex and marriage status. Men in sex, 40s in age, the graduates under middle school in level of education, people with income between 3,110,000 to 4,500,000

won, or married people in marriage status highly desire to start entrepreneurship with partner.

Third, in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family, women in comparison to men made decision to start business when there is enough family support. In age, it can be seen that the people in the age of 50's or over obtain more family support for starting the business and the people in the age of 40's require more support from family members. Also the higher people are educated the less support they require from family. The group of single people in comparison to married people is more affected by the types of jobs family members have.

Fourth, in the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establishing entrepreneurship, men, people with income between 3,110,000 to 4,500,000 won or low educated people preferred restaurant and hotel business. Single women or people with income over 4,510,000 won preferred service business, and people in the age of 30's or people with income over 4,510,000 won preferred internet related business. Married people or men desired to start venture business of new technology, and college graduates, people in the age of 30's, single people or people with income between 2,500,000 to 3,100,000 won preferred two jobs. Graduates under middle school or people in the age of 30's show clos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their latest job. It can also be seen that people in the age of 40's and men expect higher entrepreneurial cost.

Fifth, in the preference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s or people in the age of 30's obtained the information of starting business from internet web site. Women or graduates under middle school obtained the information from their family or friends, and single women obtained it from TV or radio. The people in the age of 30's desired to learn about financial management and people in the age of 50's or over desired to learn about developing business idea. University graduates desire to learn market research and people in the age of 20's or people with over 4,510,000 won income desired to have education about marketing. Graduate School graduates or over marked high percentage in the participation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Based on the survey, this research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specifically suitable for pre family entrepreneurship by understanding the five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based on social &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No.

--	--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창업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논문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본 조사 내용은 학술적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개인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가정관리 전공

강미옥

※ 다음 문항들은 창업을 생각하시는 귀하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5.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성 ② 여 성

6. 귀하의 연령은? (만 세)

7.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은? (시/도) (구/군)

8. 귀하의 교육 수준은?

- ① 무 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 졸업 ⑦ 대학원 졸업 이상

9. 귀하의 현재 또는 최근 직업은?

- | | |
|----------------------|-------------------------------|
| ①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② 전문가 |
|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 ④ 사무종사자 |
| ⑤ 서비스 종사자 | ⑥ 판매 종사자 |
| ⑦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⑩ 단순노무 종사자 |
| ⑪ 자영업 | ⑫ 전업주부 |
| ⑬ 무직 | ⑭ 기타 () |

10. 귀하의 가구소득 (본인, 배우자, 기타 소득원 포함)은 월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월 평균 () 만원

11.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12. 가족 관계를 기록해 주십시오. (본인 제외)

관계	연령	성별	학력	동거유무	취업유무	직업
배우자				동 거 () 비동거 ()	취 업 () 비취업 ()	
				동 거 () 비동거 ()	취 업 () 비취업 ()	
				동 거 () 비동거 ()	취 업 () 비취업 ()	
				동 거 () 비동거 ()	취 업 () 비취업 ()	
				동 거 () 비동거 ()	취 업 () 비취업 ()	

※ 다음은 귀하의 가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3. 귀하의 가족들은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전적으로 반대한다. ② 지지하지 않는다. ③ 중립이다
④ 지지한다. ⑤ 전적으로 지지한다. ⑥ 말해 본 적이 없다

14. 창업을 시작하신다면 귀하는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기대하십니까?

- 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② 기대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기대한다 ⑤ 전적으로 기대한다

15.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업종과 가족원의 직업(자격)과 관련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관련 없다 ② 관련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련 있다 ⑤ 매우 관련 있다

16. 귀하의 가족원의 취미 또는 특기와 창업분야와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관련 없다 ② 관련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련 있다 ⑤ 매우 관련 있다

※ 다음은 귀하가 하시려고 하는 창업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17. 귀하께서 예상하고 있는 초기 창업자금은 얼마입니까? 약 ()만원

18. 예상하는 초기 창업자금 중 가족들로부터 지원(투자 또는 차용) 받을 금액은?

약 ()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

19.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업종과 현재 귀하께서 하고 있는 일 또는 최근 직업과의 관련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관련 없다 ② 관련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련 있다 ⑤ 매우 관련 있다

20. 귀하는 어느 분야의 창업을 생각하십니까? (2개 이상 선택 가능)

-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도소매업
④ 음식·숙박업 ⑤ 서비스업 ⑥ 기 타 ()

21-1. 신기술·벤처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 다 ② 없 다

21-2. 인터넷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 다 ② 없 다

21-3. 이중직업(Two jobs)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 다 ② 없 다

21-4. 재택 사업(가정, 집을 사무실로 하는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 다 ② 없 다

※ 다음은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22. 창업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2개 이상 선택 가능)

- ① 창업관련 인터넷 사이트 ② 창업 박람회 / 사업설명회

< 부 록 표 >

<표-1>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이유

(N=270)

변인	분류	가구소득								F
		250미만		250~310		311~450		451이상		
		M	SD	M	SD	M	SD	M	SD	
가족 창업 이유	경제적인 문제	3.74	.93	3.73	.96	3.59	.96	3.47	1.05	1.139 (.334)
	노후대책	3.33	.97	3.53	1.16	3.66	.95	3.28	1.18	1.568 (.198)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3.25	1.08	3.40	1.21	3.05	1.20	3.39	1.06	1.188 (.315)
	취미 또는 여가생활	2.48	1.55	2.54	1.05	2.47	1.06	2.65	1.18	.276 (.843)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3.10	1.06	3.10	1.13	3.03	1.11	3.17	1.11	.167 (.918)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3.08	1.20	3.63	5.30	2.77	1.11	3.07	1.09	.897 (.444)
	집에서도 가능해서	2.73	1.23	2.60	1.09	2.38	1.10	2.80	1.26	1.405 (.242)
	창업에 성공한 가족을 보고	2.48	1.06	2.69	1.27	2.85	1.13	2.70	1.13	.843 (.472)

*p<0.10, **p<0.05, ***p<0.01

<표-2> 가구소득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

(N=270)

변 수	가구소득								F
	250미만		250~310		311~450		451이상		
	M	SD	M	SD	M	SD	M	SD	
가족들의 지지	3.68	.65	3.84	.86	3.72	.79	3.77	.84	.505 (.679)
가족원에 대한 기대	3.21	1.04	3.33	1.06	3.59	.93	3.45	1.00	1.617 (.186)
가족원의 직업과 창업의 관련성	2.76	1.33	2.57	1.22	2.37	1.27	2.34	1.33	1.429 (.235)
가족원의 취미 및 특기와의 관련성	2.89	1.11	3.10	1.16	2.77	1.17	2.76	1.27	1.203 (.309)

* p<0.10 **p<0.05 ***p<0.01

<표-3> 성별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N=335)

변인 분류		성별			X ²	
		남성 N(%)	여성 N(%)	전체 N(%)		
창업분야	제조업	예	17(9.9)	22(14.0)	39(11.9)	1.295 (.255)
		아니오	154(90.1)	135(86.0)	289(88.1)	
		소계	171(100)	157(100)	328(100)	
	건설업	예	5(2.9)	1(0.6)	6(1.8)	2.384 (.123)
		아니오	166(97.1)	156(99.4)	322(98.2)	
		소계	171(100)	157(100)	328(100)	
	도소매업	예	61(35.7)	49(31.2)	110(33.5)	.731 (.392)
		아니오	110(64.3)	108(68.8)	218(66.5)	
		소계	171(100)	157(100)	328(100)	
	음식·숙박업	예	42(24.7)	25(15.9)	67(20.5)	3.864** (.049)
		아니오	128(75.3)	132(84.1)	260(79.5)	
		소계	170(100)	157(100)	327(100)	
	서비스업	예	66(38.6)	82(52.2)	148(45.1)	6.143** (.013)
		아니오	105(61.4)	75(47.8)	180(54.9)	
		소계	171(100)	157(100)	328(100)	
기타	예	18(10.2)	15(9.4)	33(9.9)	.059 (.808)	
	아니오	158(89.8)	144(90.6)	302(90.1)		
	소계	176(100)	159(100)	335(100)		
창업형태	신기술벤처사업	예	64(38.1)	39(25.7)	103(32.2)	5.655** (.017)
		아니오	104(61.9)	113(74.3)	217(67.8)	
		소계	168(100)	152(100)	320(100)	
	인터넷창업	예	86(51.2)	90(59.2)	176(55.0)	2.074 (.150)
		아니오	82(48.8)	62(40.8)	144(45.0)	
		소계	168(100)	152(100)	320(100)	
	이중직업	예	98(58.7)	94(61.4)	192(60.0)	.253 (.615)
		아니오	69(41.3)	59(38.6)	128(40.0)	
		소계	167(100)	153(100)	320(100)	
	재택사업	예	70(42.4)	85(56.7)	155(49.2)	6.377** (.012)
		아니오	95(57.6)	65(43.3)	160(50.8)	
		소계	165(100)	150(100)	315(100)	

* p<0.10 **p<0.05 ***p<0.01

<표-4> 연령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N=331)

변인		연령					χ ²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소계		
분류		N(%)						
		N(%)	N(%)	N(%)	N(%)	N(%)		
창업 분야	제조업	예	5(11.4)	17(15.3)	11(10.5)	4(6.1)	37(11.3)	3.650 (.302)
		아니오	39(88.6)	94(84.7)	94(89.5)	62(93.9)	289(88.7)	
		소계	44(100)	111(100)	105(100)	66(100)	326(100)	
	건설업	예	0(0)	3(2.7)	2(1.9)	1(1.5)	6(1.8)	1.323 (.724)
		아니오	44(100)	108(97.3)	103(98.1)	65(98.5)	320(98.2)	
		소계	100(100)	111(100)	105(100)	66(100)	326(100)	
	도소매 업	예	16(36.4)	37(33.3)	32(30.5)	25(37.9)	110(33.7)	1.150 (.765)
		아니오	28(63.6)	74(66.7)	73(69.5)	41(62.1)	216(66.3)	
		소계	44(100)	111(100)	105(100)	66(100)	326(100)	
	음식· 숙박업	예	7(16.3)	17(15.3)	28(26.7)	15(22.7)	67(20.6)	4.929 (.177)
		아니오	36(83.7)	94(84.7)	77(73.3)	51(77.3)	258(79.4)	
		소계	43(100)	111(100)	105(100)	66(100)	325(100)	
	서비스 업	예	21(47.7)	55(49.5)	48(45.7)	24(36.4)	148(45.4)	3.045 (.385)
		아니오	23(52.3)	56(50.5)	57(54.3)	42(63.6)	178(54.6)	
		소계	44(100)	111(100)	105(100)	66(100)	326(100)	
	기타	예	7(15.7)	13(11.7)	9(8.3)	4(5.9)	33(10.0)	3.692 (.297)
		아니오	37(84.1)	98(88.3)	99(91.7)	64(94.1)	298(90.0)	
		소계	44(100)	111(100)	108(100)	68(100)	331(100)	
창업 형태	신기술 벤처사 업	예	14(31.8)	42(38.5)	31(30.1)	14(22.6)	101(31.8)	4.848 (.183)
		아니오	30(68.2)	67(61.5)	72(69.9)	48(77.4)	217(68.2)	
		소계	44(100)	109(100)	103(100)	62(100)	318(100)	
	인터넷 창업	예	27(62.8)	71(65.1)	51(49.5)	26(41.3)	175(55.0)	11.633*** (.009)
		아니오	16(37.2)	38(34.9)	52(50.5)	37(58.7)	143(45.0)	
		소계	43(100)	109(100)	103(100)	63(100)	318(100)	
	이중 직업	예	32(72.7)	75(68.2)	56(54.9)	28(45.2)	191(60.1)	12.837*** (.005)
		아니오	12(27.3)	35(31.8)	46(45.1)	34(54.8)	127(39.9)	
		소계	44(100)	110(100)	102(100)	62(100)	318(100)	
	재택 사업	예	19(43.2)	60(56.1)	43(42.2)	32(53.3)	154(49.2)	5.096 (.165)
		아니오	25(56.8)	47(43.9)	59(57.8)	28(46.7)	159(50.8)	
		소계	44(100)	107(100)	102(100)	60(100)	313(100)	

* p<0.10 **p<0.05 ***p<0.01

<표-5> 교육수준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N=334)

변인		교육수준					χ ²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전체		
분류		N(%)	N(%)	N(%)	N(%)	N(%)		
창업 분야	제조업	예	4(26.7)	11(8.9)	23(13.8)	1(4.5)	39(11.9)	5.903 (.116)
		아니오	11(73.3)	113(91.1)	144(86.2)	21(95.5)	289(88.1)	
		소계	15(100)	124(100)	167(100)	22(100)	328(100)	
	건설업	예	0(0)	2(1.6)	4(2.4)	0(0)	6(1.8)	1.020 (.797)
		아니오	15(100)	122(98.4)	163(97.6)	22(100)	322(98.2)	
		소계	15(100)	124(100)	167(100)	22(100)	328(100)	
	도소매 업	예	6(40.0)	35(28.2)	64(38.3)	6(27.3)	111(33.8)	3.923 (.270)
		아니오	9(60.0)	89(71.8)	103(61.7)	16(72.7)	217(66.2)	
		소계	15(100)	124(100)	167(100)	22(100)	328(100)	
	음식· 숙박업	예	0(0)	37(30.1)	28(16.8)	2(9.1)	67(20.5)	13.987*** (.003)
		아니오	15(100)	86(69.9)	139(83.2)	20(90.9)	260(79.5)	
		소계	15(100)	123(100)	167(100)	22(100)	327(100)	
	서비스 업	예	8(53.3)	51(41.1)	75(44.9)	13(59.1)	147(44.8)	2.935 (.402)
		아니오	7(46.7)	73(58.9)	92(55.1)	9(40.9)	181(55.2)	
		소계	15(100)	124(100)	167(100)	22(100)	328(100)	
기타	예	1(6.3)	10(8.0)	19(11.1)	3(13.6)	33(9.9)	1.373 (.712)	
	아니오	15(93.8)	115(92.0)	152(88.9)	19(86.4)	301(90.1)		
	소계	16(100)	125(100)	171(100)	22(100)	334(100)		
창업 형태	신기술 벤처 사업	예	3(25.0)	36(29.3)	53(32.5)	12(54.5)	104(32.5)	5.767 (.124)
		아니오	9(75.0)	87(70.7)	110(67.5)	10(45.5)	216(67.5)	
		소계	12(100)	123(100)	163(100)	22(100)	320(100)	
	인터넷 창업	예	2(15.4)	60(48.8)	101(62.0)	14(66.7)	177(55.3)	14.520*** (.002)
		아니오	11(84.6)	63(51.2)	62(38.0)	7(33.3)	143(44.7)	
		소계	13(100)	123(100)	163(100)	21(100)	320(100)	
	이중 직업	예	3(23.1)	70(58.3)	108(65.5)	11(50.0)	192(60.0)	10.486** (.015)
		아니오	10(76.9)	50(41.7)	57(34.5)	11(50.0)	128(40.0)	
		소계	13(100)	120(100)	165(100)	22(100)	320(100)	
	재택 사업	예	2(16.7)	58(48.7)	83(50.6)	12(60.0)	155(49.2)	6.156 (.104)
		아니오	10(83.3)	61(51.3)	81(49.4)	8(40.0)	160(50.8)	
		소계	12(100)	119(100)	164(100)	20(100)	315(100)	

* p<0.10 **p<0.05 ***p<0.01

<표-6> 가구소득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N=270)

변인		가구소득					χ^2	
		250미만	250~310	311~450	451이상	전체		
분류		N(%)	N(%)	N(%)	N(%)	N(%)		
창업 분야	제조업	예	7(11.7)	11(15.3)	4(6.5)	11(84.9)	33(12.4)	3.085 (.379)
		아니오	53(88.3)	61(84.7)	58(93.5)	62(15.1)	234(87.6)	
		소계	60(100)	72(100)	62(100)	73(100)	267(100)	
	건설업	예	2(3.3)	2(2.8)	1(1.6)	1(1.4)	6(2.2)	.784 (.853)
		아니오	58(96.7)	70(97.2)	61(98.4)	72(98.6)	261(97.8)	
		소계	60(100)	72(100)	62(100)	73(100)	267(100)	
	도소매업	예	23(38.3)	28(38.9)	20(32.3)	20(27.4)	91(34.1)	2.767 (.429)
		아니오	37(61.7)	44(61.1)	42(67.7)	53(72.6)	176(65.9)	
		소계	60(100)	72(100)	62(100)	73(100)	267(100)	
	음식·숙박업	예	8(13.3)	17(23.6)	24(38.7)	7(9.7)	56(21.1)	19.626*** (.000)
		아니오	52(86.7)	55(76.4)	38(61.3)	65(90.3)	210(78.9)	
		소계	60(100)	72(100)	62(100)	72(100)	266(100)	
	서비스업	예	25(41.7)	23(31.9)	25(40.3)	42(57.5)	115(43.1)	10.102** (.018)
		아니오	35(58.3)	49(68.1)	37(59.7)	61(42.5)	152(56.9)	
		소계	60(100)	72(100)	62(100)	73(100)	267(100)	
	기타	예	4(6.7)	9(12.2)	3(4.8)	12(16.2)	28(10.4)	5.903 (.116)
		아니오	56(93.3)	65(87.8)	59(95.2)	62(83.8)	242(89.6)	
		소계	60(100)	74(100)	62(100)	74(100)	270(100)	
창업 형태	신기술 벤처사업	예	21(36.2)	29(41.4)	18(29.5)	19(26.4)	87(33.3)	4.244 (.236)
		아니오	37(63.8)	41(58.6)	43(70.5)	53(73.6)	174(66.7)	
		소계	58(100)	70(100)	61(100)	72(100)	261(100)	
	인터넷 창업	예	31(53.4)	44(62.0)	26(42.6)	45(63.4)	146(55.9)	7.178* (.066)
		아니오	27(46.6)	27(38.0)	35(57.4)	26(36.6)	115(44.1)	
		소계	58(100)	71(100)	61(100)	71(100)	261(100)	
	이중직업	예	32(55.2)	48(70.6)	27(43.5)	45(62.5)	152(58.5)	10.538** (.015)
		아니오	26(44.8)	20(29.4)	35(56.5)	27(37.5)	108(41.5)	
		소계	58(100)	68(100)	62(100)	72(100)	260(100)	
	채택사업	예	30(51.7)	36(53.7)	30(49.2)	29(40.3)	125(48.4)	2.935 (.402)
		아니오	28(48.3)	31(46.3)	31(50.8)	43(59.7)	133(51.6)	
		소계	58(100)	67(100)	61(100)	72(100)	258(100)	

* p<0.10 **p<0.05 ***p<0.01

<표-7> 혼인유무에 따른 창업 관련 특성

(N=279)

변인		혼인유무			F	
분류		미혼	기혼			
		M(SD)	M(SD)			
창업자금		7163.64 (7479.02)	8053.51 (7127.86)		.646(.422)	
가족 지원금		3606.06 (3747.41)	4093.75 (3726.37)		.419(.518)	
창업과 직업과의 관계		3.57 (1.48)	3.20 (1.46)		2.668(.104)	
분류		미혼	기혼	전체	χ ²	
		N(%)	N(%)	N(%)		
창업 분야	제조업	예	6(10.5)	21(11.1)	27(11.0)	.015 (.901)
		아니오	51(89.5)	168(88.9)	219(89.0)	
		소계	57(100)	189(100)	246(100)	
	건설업	예	1(1.8)	4(2.1)	5(2.0)	.029 (.865)
		아니오	56(98.2)	185(97.9)	241(98.0)	
		소계	57(100)	189(100)	246(100)	
	도소매업	예	21(36.8)	64(33.9)	85(34.6)	.172 (.678)
		아니오	36(63.2)	125(66.1)	161(65.4)	
		소계	57(100)	189(100)	246(100)	
	음식·숙박업	예	12(21.1)	42(22.3)	54(22.0)	.042 (.837)
		아니오	45(78.9)	146(77.7)	191(78.0)	
		소계	57(100)	188(100)	245(100)	
	서비스업	예	31(54.4)	77(40.7)	108(43.9)	3.311* (.069)
		아니오	26(45.6)	112(59.3)	138(56.1)	
		소계	57(100)	189(100)	246(100)	
기타	예	4(7.0)	19(9.9)	23(9.2)	.434 (.510)	
	아니오	53(93.0)	173(90.1)	226(90.8)		
	소계	57(100)	192(100)	249(100)		
창업 형태	신기술 벤처사업	예	14(25.0)	60(32.3)	74(30.6)	1.068** (.031)
		아니오	42(75.0)	126(67.7)	168(69.4)	
		소계	56(100)	186(100)	242(100)	
	인터넷 창업	예	34(60.7)	90(48.4)	124(51.2)	2.618 (.106)
		아니오	22(39.3)	96(51.6)	118(48.8)	
		소계	56(100)	186(100)	242(100)	
	이중직업	예	40(71.4)	100(54.1)	140(58.1)	5.330** (.021)
		아니오	16(28.6)	85(45.9)	101(41.9)	
		소계	56(100)	185(100)	241(100)	
	재택사업	예	30(54.5)	83(45.4)	113(47.5)	1.432 (.231)
		아니오	25(45.5)	100(54.6)	125(52.5)	
		소계	55(100)	183(100)	238(100)	

* p<0.10 **p<0.05 ***p<0.01